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과 과제

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15:00~15:05 | <p>개회식</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혜승 부연구위원</p> <p>개회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실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임현목 교육본부장</p> <p>단체사진</p> |
| 15:05~15:45 | <p>세션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분야별 현황과 과제</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p> <p>발표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혜승 부연구위원)</p> <p>발표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부연구위원)</p> <p>발표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현황과 과제 (남북하나재단 신호숙 부장)</p> <p>발표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현황과 과제 (경인교육대학교 신재현 교수)</p> |
| 15:45~16:35 | <p>세션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분야별 제언</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현숙 팀장</p> <p>토론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분야 제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연구위원)</p> <p>토론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분야 제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p> <p>토론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분야 제언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p> <p>토론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분야 제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원호 부연구위원)</p> <p>토론 5.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제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김영은 교육연구관)</p> |
| 16:35~16:55 | 자유토론 |
| 16:55~17:00 | 폐회 |

목 차

세션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분야별 현황과 과제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1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 현황과 과제 17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현황과 과제 39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부장)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현황과 과제 55
신재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세션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분야별 제언

- 토론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분야 제언 73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분야 제언 77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토론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분야 제언 81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분야 제언 85
김원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연구위원)
- 토론 5.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제언 89
김영은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교육연구관)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발표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조혜승(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SDG 4 목표를 수립함. 이 중 SDG 4.5는 교육형평성을 다루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교육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형평성'을 강조한 내용임.
- 국내 맥락에서 SDG 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탈북민 아동, 장애인 등 국내 다양한 취약집단을 고려한 이행방안과 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1) 다문화 가정의 학생(본고에서는 다문화 학생으로 사용함)과 관련된 현안을 진단하고 2)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4.5 지표(안)을 도출하고자 함.

1) 현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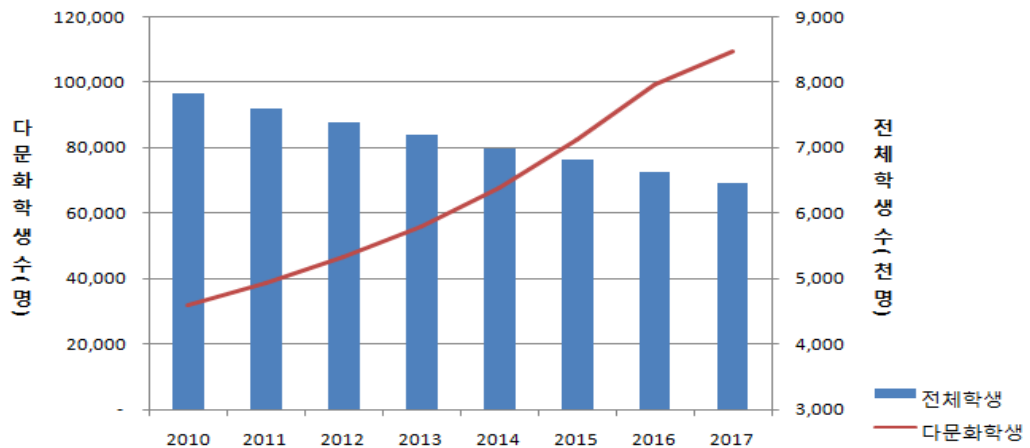
□ 다문화 학생 현황

- 국내 취약집단 중 다문화 학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 학생'은 1) 국내에서 출생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2)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2)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세 범주에 속하는 학생을 의미함(양계민 외,

2017). 또한 본고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교육은 SDG 4.5 취약계층의 교육형 평성 제고 측면에 주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되는 다문화교육을 제외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에 한정하고자 함.

- 국내 인구 중 외국인 수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2007년 1.5%(72만 명)이었던데 반해, 2016년에는 총 인구 중 3.4%(176만 명)이 외국인주민 수를 차지함. 한국 체류 외국인 수도 2016년 기준 205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성숙이 필요한 상황임 (교육부, 2018).
- 국내 전체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만명을 초과함. 2017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총 109,387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9%**를 차지함(교육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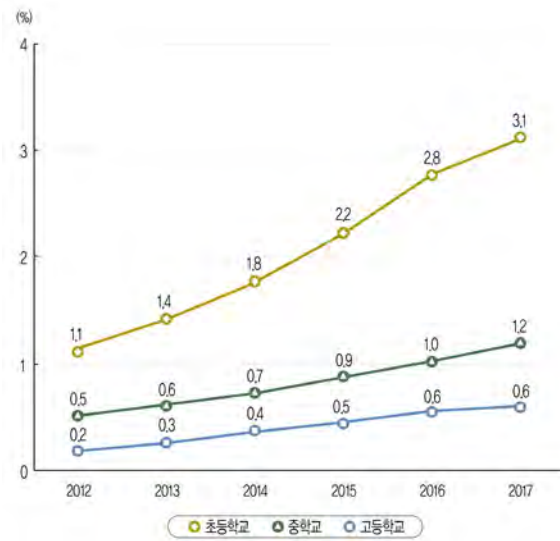
<그림 1> 전체학생 및 다문화 학생 증감 추이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

-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차지함.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 중 3.1%가 다문화 학생이며, 중학생의 경우 1.2%, 고등학생의 경우 0.6%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됨. 즉,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함. 또한 2012년을 기점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수준에서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비율(2012~201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 43

- 다문화 학생의 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최근 다문화 학생의 특성이 다양화 되고 있음. 2017년 기준, 총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자녀의 비율이 81.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11.2%로 다수를 차지함.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은 7.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상당수를 차지함. 특히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도입국학생’ 과 ‘외국인가정의 자녀’ 가 다수 편·입학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교육부, 2018).

※ 중도입국·외국인자녀 다문화학생 수 : ('12) 6,914명 → ('17) 20,073명
 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학생 수 : ('12) 13,262명 → ('17) 26,581명

- 다문화 학생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 포함)계 학생이 가장 많으며, 일본과 베트남계 학생들도 다수를 차지함.

<표 1> 2017년 다문화 학생현황

(단위 : 명, % / 출처 : 교육통계)

| 구분 | 유형 | 국제결혼가정 | | 외국인가정 | 계 |
|-----------|------|--------|--------|---------|---------------|
| | | 국내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자녀 | |
| 학교급 | 초 | 68,624 | 4,865 | 9,317 | 82,806 (3.1) |
| | 중 | 12,273 | 1,740 | 1,970 | 15,983 (1.2) |
| | 고 | 8,417 | 1,187 | 994 | 10,598 (0.6) |
| 부모 출신국 | 중국* | 25,604 | 3,651 | 7,450 | 36,705 |
| | 베트남 | 27,841 | 942 | 236 | 29,019 |
| | 필리핀 | 12,306 | 601 | 216 | 13,123 |
| | 일본 | 10,282 | 1,001 | 219 | 11,502 |
| | 기타** | 13,281 | 1,597 | 4,160 | 19,038 |
| 합계 | | 89,314 | 7,792 | 12,281 | 109,387 (1.9) |

※ 괄호 안은 전체 학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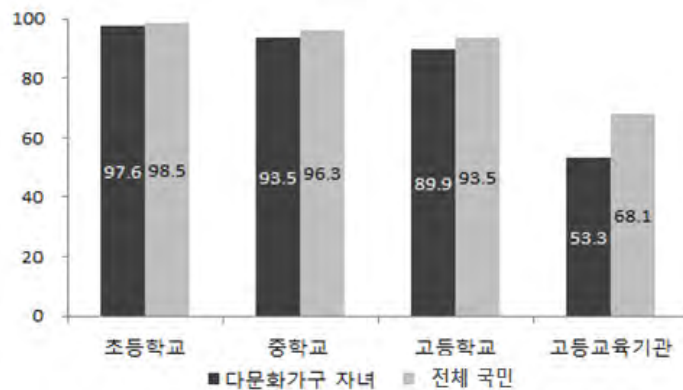
* 한국계 중국 포함 / **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 그밖에 국가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0

□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과 학업중단을

- 2015년 기준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7.6%, 중학교 93.5%, 고등학교 89.9%, 고등교육기관 53.3%이며, 다문화 학생과 전 국민 취학률을 비교해 보면 <그림 3>과 같음(여성가족부, 2016). 두 집단 간 취학률과의 격차는 초등학교 0.9%, 중학교 2.8%, 고등학교 3.6%, 고등교육기관 14.8%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짐.

<그림 3> 다문화가구 자녀와 전체 국민의 취학률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p. 37

-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을 역시 전국민 학생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교육부, 2017).
- 2015년 기준 전국민 학생의 학업중단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0.6%, 고등학교 1.3%인데 반해, 다문화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0.7%, 중학교 1.15%, 고등학교 1.14%로 전반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소폭 더 높은 경향을 보임.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국민 평균보다 0.16p 낮았으나 지속적인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2>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 변화(2014-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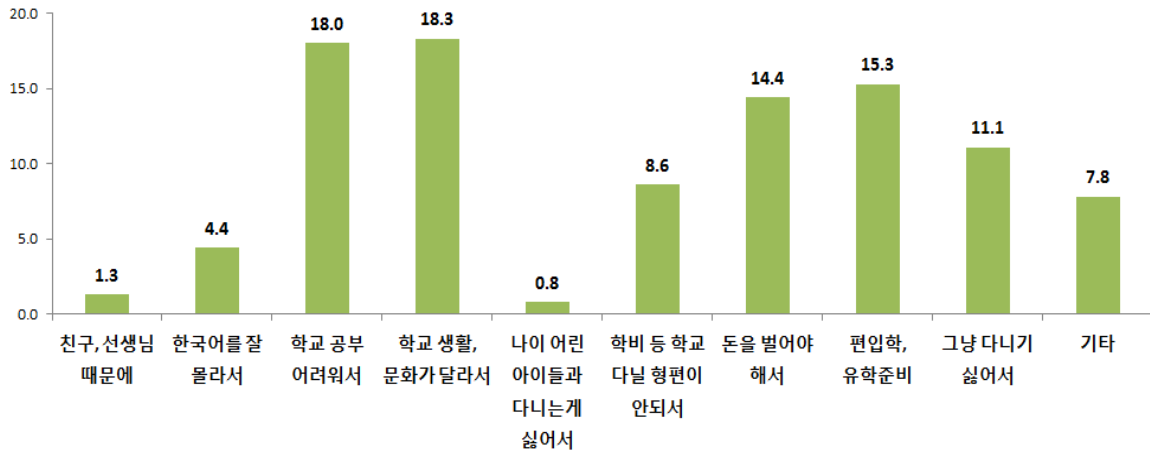
| 연도 | 구분 | 초 | 중 | 고 | 계 |
|--------|-----------------|-------------|-------------|-------------|-------------|
| 2014년도 | 재학생수 | 48,297 | 12,525 | 6,984 | 67,806 |
| | 학업중단자수 | 435 | 146 | 107 | 688 |
| | 학업중단율(%) | 0.90 | 1.16 | 1.53 | 1.01 |
| 2015년도 | 재학생수 | 60,283 | 13,865 | 8,388 | 82,536 |
| | 학업중단자수 | 423 | 159 | 118 | 700 |
| | 학업중단율(%) | 0.70 | 1.15 | 1.14 | 0.85 |

출처: 교육부(2017). 다문화교육지원계획발표, 시·도 교육청 자료집계

-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가 가장 많았고,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그냥 다니기 싫어서(11.1%)’ 등의 이유가 지목됨.

〈그림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p. 21

- 다문화 학생들 중 상당수는 매우 어려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함.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 정체성의 혼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여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음(조용달 외, 2006; 이정금, 2018에서 재인용). 특히 중도입국학생의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및 한국어 사용능력이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낮음(감사원, 2018).
-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학생 수가 많으며 다문화 학습부진 학생은 일반 학습부진학생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가장 부족하고, ‘학습 이해 능력 미흡’, ‘가정내 문제’, ‘문화적 경험차이’를 이유로 학습부진을 경험한다고 나타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운 실정임.

□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현황

-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마련하여(2018년 상반기 중) 다문화교육의 목적 및 정의,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교육부, 2018).

| 법령명 |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 한계 |
|-------------|---|-------------------------------------|
| 유엔 아동권리협약 |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 보장 및 무상교육 제공 | 협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
| 초·중등교육법 | 다문화 학생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류요건 완화 등 |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시 근거, 구체적 교육지원 내용 등 미비 |
|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시책 마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정의 제한적 (부모 중 한국인 포함) |
| 제한외국인처우 기본법 |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미등록 이주아동 제외, 구체적 지원내용 미비 |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18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출처: 감사원(2018). 감사보고서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p. 10

□ 정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현황

- 정부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지원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이정금, 2018).
- 여성가족부는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인수받으며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을 관장하게 됨(이정금, 2018).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다문화 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음. 2012년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한 바 있으며, 최근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법무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서비스 정책으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08.3.12. 법무부 훈령 제 12호)에 따라 이민자,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2017년에는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양계민 외, 2017)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함.
- 교육부의 ‘2018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은 다문화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하고자 하는 추진과제를 설정함.

<그림 5>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추진과제

| 추진과제 | | |
|---|---|---|
|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 ②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③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 ④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범부처 협력 ■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 |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 추진 방향

-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다문화 학생이 학업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K-SDG 4.5의 이행과제와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문화 학생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2018년 예정). 또한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K-SDG 4.5의 수립 및 이행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을 제고하고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제공 등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이 필요함.
 -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학생의 편·입학 시, 예비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일반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전담교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 제도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에서 교육/학습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예, 대안학교 등)과 2) 공교육 진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이 두 방안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취약집단의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 중단 다문화 학생과 공교육제도 밖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 약 30%라는 점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난민 등을 고려할 때 공교육 제도 밖 아동에 대한 지원 전략 논의가 필요함.
 - 교육부는 난민과 무연고 아동의 경우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 K-SDG 4.5 지표작성

4.5.1 취약집단(다문화 학생)의 취학률

1) 정의

- 취약집단의 취학률 (다문화 학생)

2) 목적 또는 의의

- 취약집단의 취학률을 통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해당연령 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4) 최근 5년간 추세¹⁾

| 연도 | 2012 | 2014 | 2015 | 2016 | 2017 |
|------|------|------|------|------|------|
| 초등학교 | 97.9 | - | 97.6 | - | - |
| 중학교 | 92.3 | - | 93.5 | - | - |
| 고등학교 | 85.1 | - | 89.9 | - | - |
| 고등교육 | 49.3 | - | 53.3 | - | -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조

5) 비교지표

- 한국의 학교급별 취학률(교육부 통계)

1)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를 모집단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통계가 산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여성가족부(2016)『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학률을 활용함. 여성가족부(2016)는 본 조사의 가구 구성표에서 가구원의 만 연령을 조사하여 시점인 본 조사대상인 다문화가구 내 자녀들의 취학적령인구 집단을 파악함.

6) 시사점

-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이 대다수이며 이들은 의무교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을 지표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과 비교하여 취학률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에 따라 취학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단기 체류자의 경우 취학률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학교에서 수집한 정보 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4.5.2. 취약집단(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

1) 정의

- 취약집단(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출국)를 이유로,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취약집단의 학업중단율을 파악하여 취약집단의 학업중단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text{학업중단자수} / \text{재적 학생수}) *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4) 최근 5년간 추세

| 연도 | 구분 | 초 | 중 | 고 | 계 |
|--------|----------|--------|--------|-------|--------|
| 2014년도 | 재학생수 | 48,297 | 12,525 | 6,984 | 67,806 |
| | 학업중단자수 | 435 | 146 | 107 | 688 |
| | 학업중단율(%) | 0.90 | 1.16 | 1.53 | 1.01 |
| 2015년도 | 재학생수 | 60,283 | 13,865 | 8,388 | 82,536 |
| | 학업중단자수 | 423 | 159 | 118 | 700 |
| | 학업중단율(%) | 0.70 | 1.15 | 1.14 | 0.85 |

출처: 교육부(2017). 다문화교육지원계획발표, 시·도 교육청 자료집계

5) 비교지표

- 한국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교육부 통계)

6) 시사점

-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국민 학생에 비해 높고 이들이 ‘한국어 문제’와 ‘문화’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이를 수치화 하여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나 본 지표를 K-SDG 내 지표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학업계획과 가정환경에 의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경우 역시 학업중단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선택문제로 볼 것인지 형평성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따라서 다문화 학생 내 집단간 학교급별간 차이를 고려한 학업중단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감사원(2018). 감사보고서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양계민, 김성식, 김재우, 김주영(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교육부
수탁연구.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여성가족부
- 이정금(2018).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 549-567.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 현황과 과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 현황과 과제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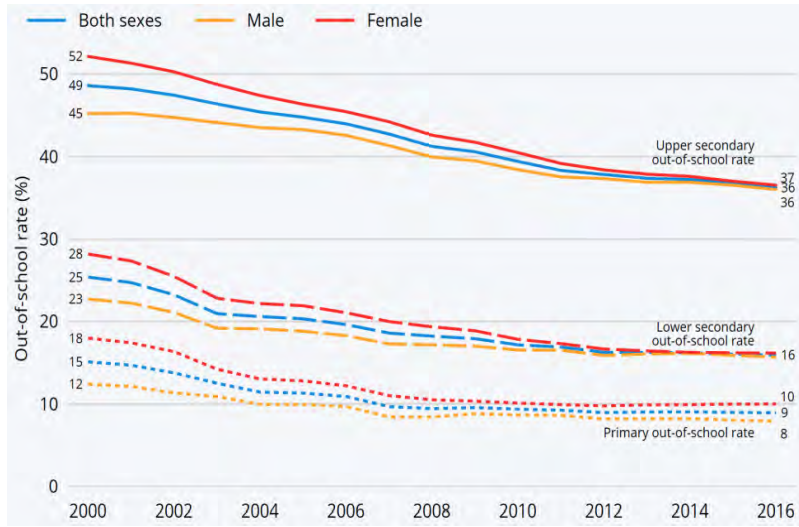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현안 진단

□ 교육에서의 성별 기회의 평등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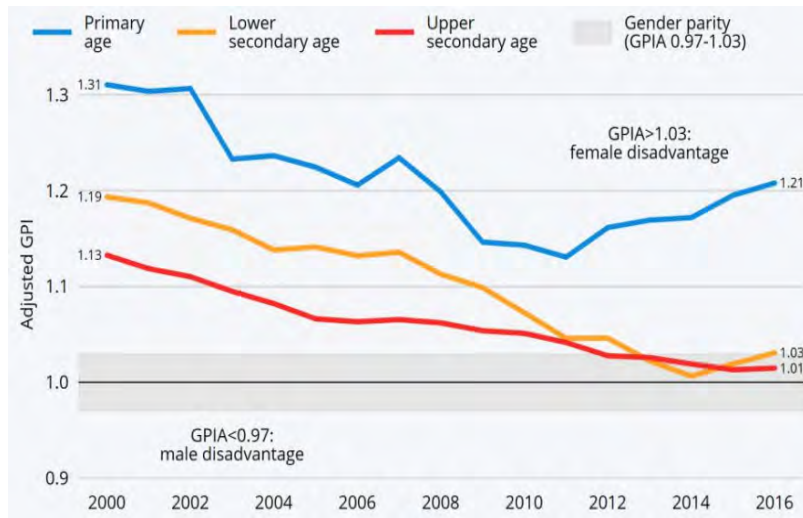
- 전통적으로 교육의 기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열려져있었으나,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등과 같은 전세계적 노력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
 - 전세계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2000년 377백만명에서 2016년 263백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하였으며(UNESCO-UIS, 2018), 성별 격차 또한 확연하게 줄어들어 초중고 모두 성별 비재학비율이 2000년 5~7%p에서 2016년 2% 이내로 줄어들었음(그림1).
 - 그럼에도 남성 대비 여성의 비재학 비율은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조정된 성격차지수(GPIA)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며(그림2), 특히 초등학교 취학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1.21)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그림2).
 -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성격차지수가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일단 진입하면 탈락에서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으나, 일단 교육에의 진입 장벽에서의 성차별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연령대별 · 성별 비재학 비율



출처: UNESCO UIS(2018).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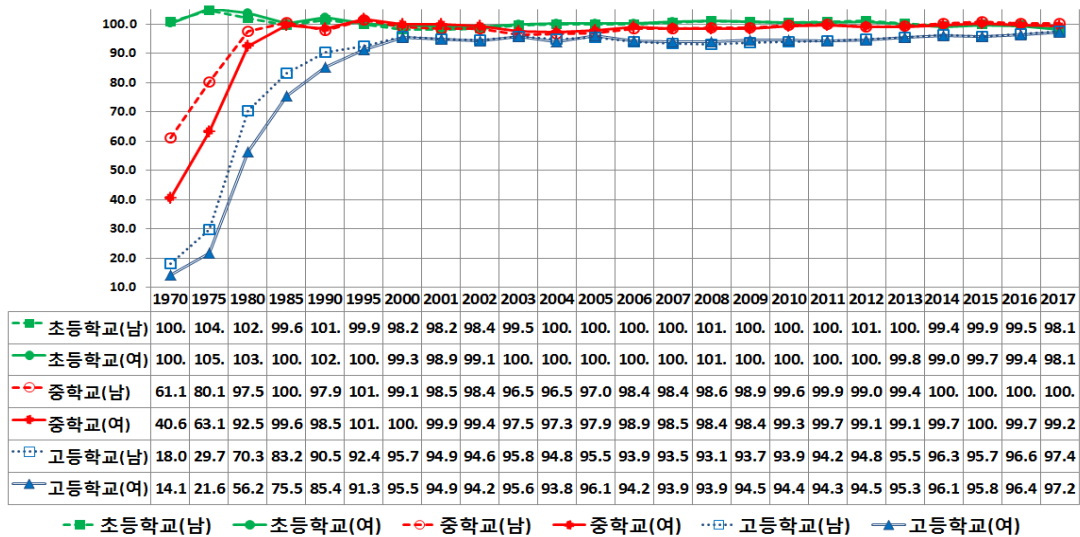
<그림 2> 비재학 비율에서의 성격차지수



출처: UNESCO UIS(2018). p.6.

- 한국 또한 전통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성은 여학생이 더 불리하였으나, 초등학교는 1970년, 중학교는 1990년, 고등학교는 2001년 즈음부터 여학생의 취학률이 남학생과 동등하거나, 처음으로 남학생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그림3).
 -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짧은 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중학교 여학생 취학률의 경우에는 1970년 40.6%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 99.6%로 15년 만에 약 60%p의 높은 향상을 보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70년 14.1%에 불과한 고등학교 여학생 취학률이 1990년 91.3%로 뛰어올라 20년 만에 약 75%p 향상되었음(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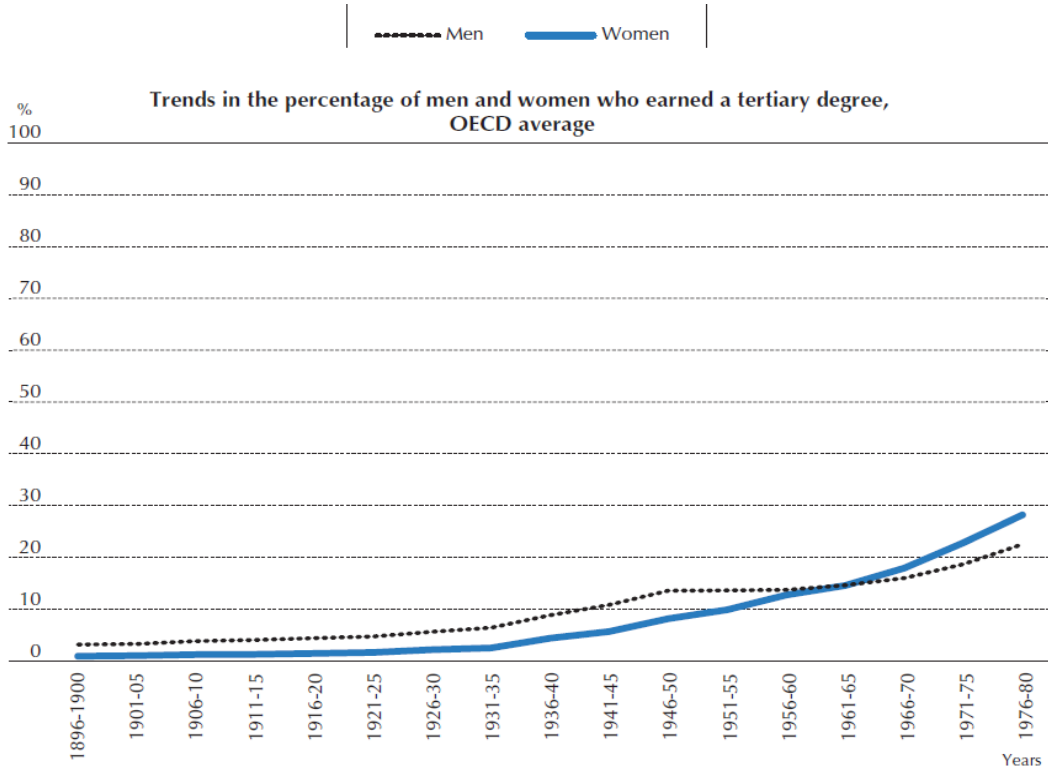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학교급별 성별 취학률(GRE)



주1: 총취학률(gross enrollment rate) 기준임.
 주2: 한국의 인구 산출은 인구총조사에 의해 확정하므로 2016년부터는 다음 추계까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재분석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DB,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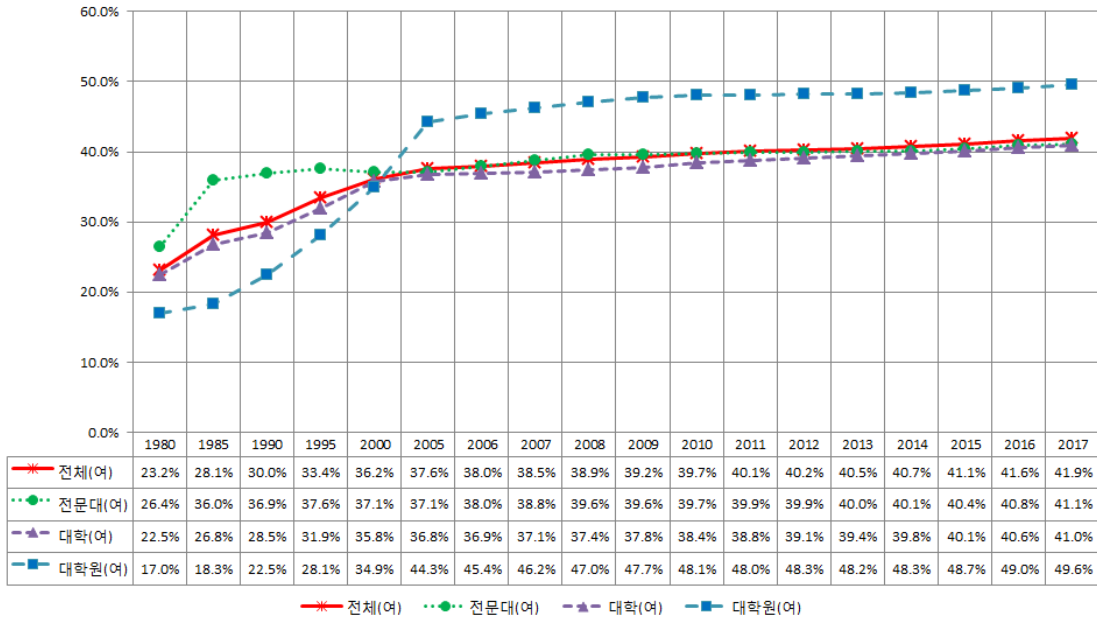
- 고등교육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970대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하였음(그림 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전문대와 대학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각각 41%에 불과하고, 고등교육 전체적으로도 여학생의 비율이 42%로 이미 수십년 전 고등교육에서의 여학생 참여가 남학생을 능가한 선진국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5).

<그림 4> 성별 고등교육 학위 취득 비율



출처: OECD(2015). p.23.

<그림 5> 고등교육에서의 여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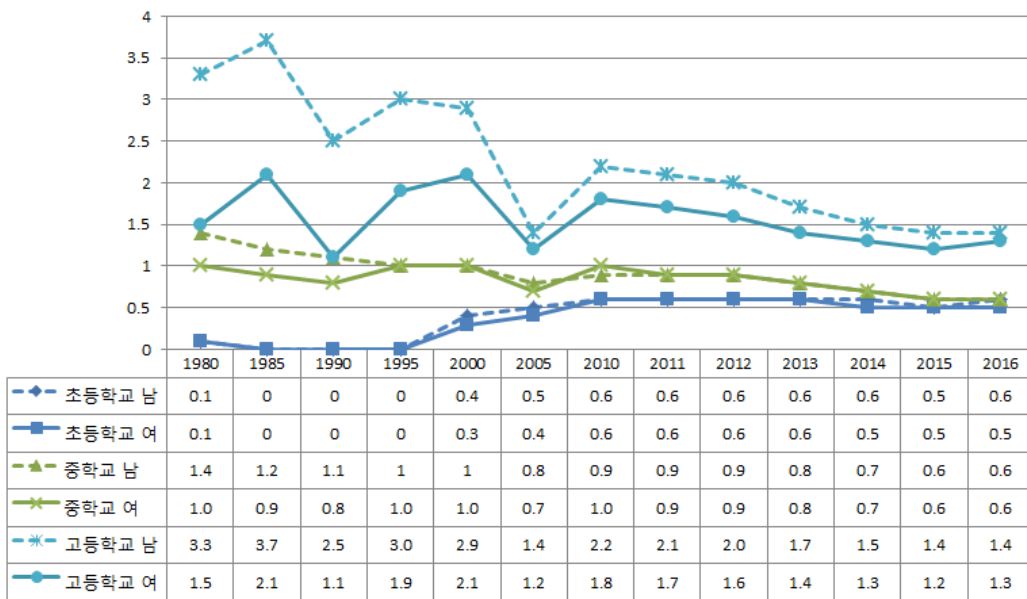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재분석

□ 증가하는 남학생의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률은 학교급별 경향이 다른데, 초등학교에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중학교와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그림 6).
-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여전히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학생보다 더 낮거나 같은 경우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도탈락률은 남녀 모두 0.5% 안팎으로 비교적 낮으나, 고등학교는 여전히 1.3% 이상으로 남녀 초중학교와 중학교 보다 두 배 이상 높음.

<그림6> 학교급별 성별 학업중단율(198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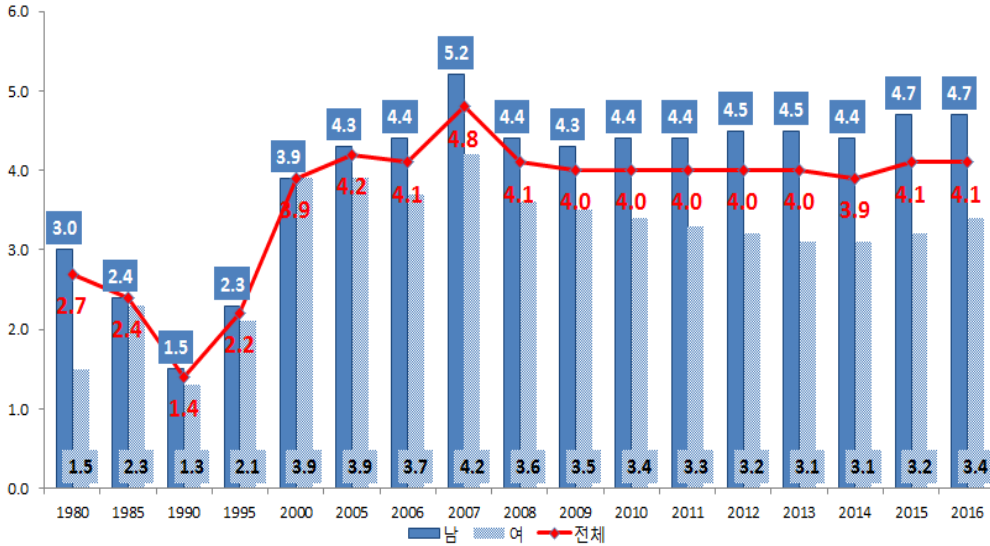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p.54-55.

- 더 주목할 부분은 고등교육에서의 성별중도탈락률임. 대학에서의 성별 중도탈락률 격차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는데, 200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여학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기준으로 1.3%p의 격차를 보여 앞서 살펴본 고등학교에서의 성별 격차 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됨(그림 7).
- 그러나 고등교육에서의 중도이탈은 초중등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만을 가지고 남학생의 고등교육 이탈이 더 심하다고 단정하기를

어려움. 이는 상당수의 남학생들이 단편적 중도이탈이 아닌, 편입이나, 재수 등 더 나은 선택을 위해 학교를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7> 성별 대학 중도탈락률(198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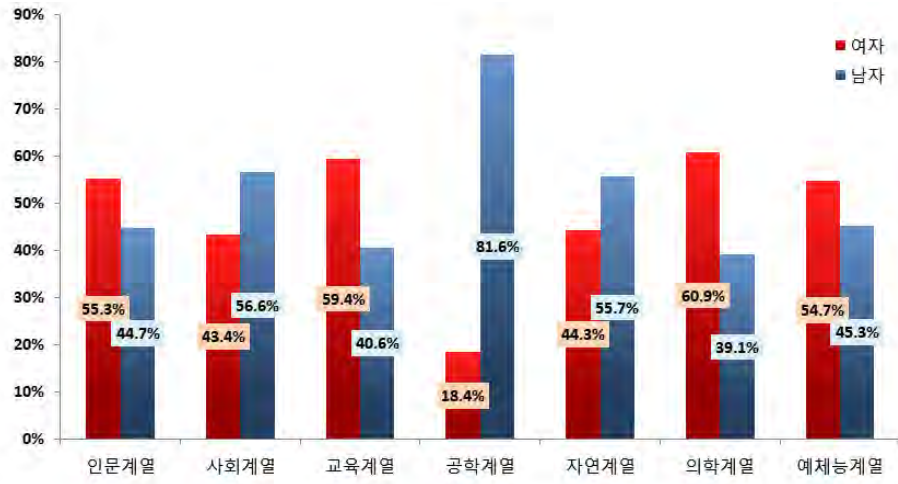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p.62.

□ 해소되지 않는 진로에서의 성별 분리

- 남녀의 교육기회는 평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교육이라는 일종의 중간과정 끝에 나타나는 진로선택은 여전히 남녀학생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여학생은 여전히 의학계(60.9%), 교육계(59.4%), 인문계(55.3%), 예체능계(54.7%) 비중이 높고, 남학생은 공학계(81.6%), 사회계(56.6%), 자연계(55.7%)에서 우세함. 여학생들의 고등교육 진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성별 전공 분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업 분리가 완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공학계는 남학생(83.6%)이 비율이 여학생(16.4%) 보다 다섯 배 이상 많아 모든 전공계열 중 가장 심각한 격차를 보임(그림 8). 여전히 수학, 과학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라나는 세대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그림 8> 계열별 성별 비중 및 취업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재분석

- 진로의 성별 분리는 비단,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님.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결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성별 전공의 분리 현상이 그대로 관찰됨.
 - 특성화고 전체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43.1%이지만, 이들 여학생은 대부분 산업계(71.1%)와 가사·실업계(66.7%)에 포진하고 있고, 공업계와 수산·해양계, 농업계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각각 15.5%, 11.3%, 15.5%에 불과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의 경향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성별 분리가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지점임.

<표 1> 특성화고 분야별 남녀 비율(2007, 2012, 2017년)

단위: %(명)

| 구분 | 2007 | | | 2012 | | | 2017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전 체 | 100(494,011) | 54.1 | 45.9 | 100(221,107) | 55.9 | 44.1 | 100(271,446) | 56.9 | 43.1 |
| 농업계 | 100(13,737) | 60.6 | 39.4 | 100(12,026) | 62.2 | 37.8 | 100(14,146) | 62.3 | 37.7 |
| 공업계 | 100(186,096) | 85.3 | 14.7 | 100(101,222) | 83.0 | 17.0 | 100(124,130) | 84.5 | 15.5 |
| 상업계 | 100(162,988) | 26.3 | 73.7 | 100(90,524) | 27.7 | 72.3 | 100(106,696) | 28.9 | 71.1 |
| 수산 및 해양계 | 100(4,043) | 93.0 | 7.0 | 100(1,974) | 83.2 | 16.8 | 100(1,983) | 88.7 | 11.3 |
| 가사 및 실업계 | 100(37,191) | 44.2 | 55.8 | 100(15,361) | 35.4 | 64.6 | 100(24,386) | 33.3 | 66.7 |
| 종합고 | 100(89,956) | 41.1 | 58.9 | - | - | - | 100(105) | 81.0 | 19.0 |

주: 2012년의 경우, 종합고가 기타계열로 분리되어 특성화고에서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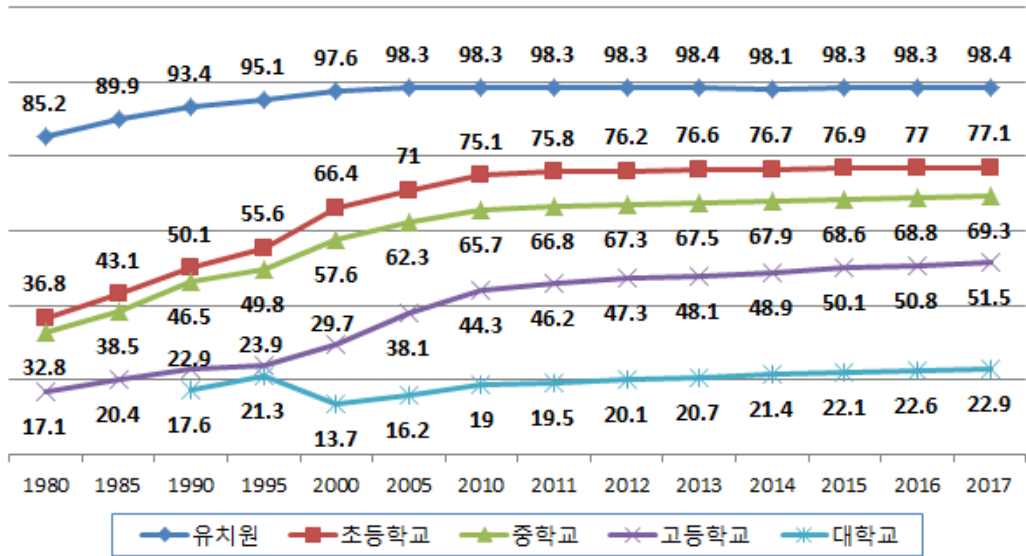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학생들의 학업-직업세계 이행에 있어서 전공은 직업선택과 직결된 지점에 있음. 따라서 전공의 성별분리는 직종의 성별분리를 의미함. 그리고 이러한 직종의 성별분리는 고스란히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제한된 영향력과는 무관하지 않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음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기 위해서는 전공과 진로에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함.

□ 여교사의 증가와 여성 리더십 부재

-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여교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1980년대 36.8%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70%를 상회, 현재는 77.1%를 차지하며, 중학교도 1980년 32.8%에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음. 고등학교 또한 1980년 17.1%에 불과한 여성교원 비율이 현재는 51.5%로 과반을 차지함. 다만, 초중고에서의 약진과 달리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22.9%에 불과함.
- 그러나 여성교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별 여교원의 비율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남. 즉,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여교원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져서 여교원 증가 경향이 위계적임을 알 수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은 훑어보면, 유치원에서는 98.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원이 남교원의 세 배 수준인 77.1%를, 중학교에서도 69.3%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고등학교에는 여교원 비율은 더 낮아져서 51.5%이며, 대학에서는 22.9%에 불과함. 초중등에서 여교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학에서의 여교원은 여전히 상당히 낮음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9> 학교급별 여성교원 비율(198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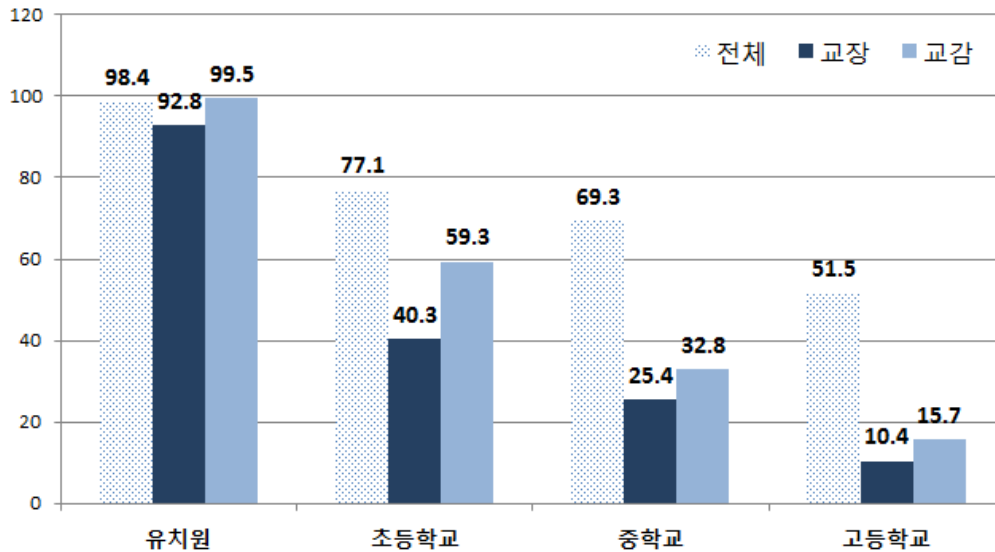


주: 대학은 전임교원 기준(비전임 불포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재분석

- 한편, 여교원의 비율이 증가가 교육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지난 30년간 한국의 초중등교육에서 여교원의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육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이 77%를 육박함에도 여성 교장 비율은 40.3%에 불과함. 중학교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커서 여교원 비율이 70%를 차지함에도 여교장은 25.4%이며, 고등학교에서는 10.4%로 급격히 낮아짐.
 - 다행히도 교감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여교장보다 높아서 향후 이들 세대가 교장으로 진입할 경우, 여교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됨. 그럼에도 중학교(32.8%)와 고등학교(15.7%)에서는 여교감 비율 또한 현재 여교원 비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향후 중등교육에서의 여성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모색될 필요가 있음.

<그림 10> 학교급별 여성 관리자 비율(2017년 기준)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법률

- 우리나라는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제17조의2)’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남녀평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음.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제36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앞서도 거론하였듯이 국공립 일반대학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원의 양성평등한 임용에 관한 법률(11조의4)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교육부 내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 교원을 임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6조의2, 6조의3).
- 그 외에도 지난 2003년에 마련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공계 여성인력에 대한 양성, 연구 및 학술 장려, 경력지원,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장려와 이공계 여학생의 학업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추진 정책

-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은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기본계획』 과 같은 주로 국가의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 현재는 2018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추진 중임. 동 기본계획에서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라는 중과제 (1-2) 아래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3) 교육 및 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4)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고가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음.

<표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의 교육 관련 정책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유아, 초·중등학생, 대학생 등 각급 학생에 대한 참여형 수업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교육부)
 -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 초·중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 학교 및 체육시설 내 성별 탈의 공간 확충
 - 학교 스포츠클럽 내 성별 선호 스포츠 운영 권장
-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
 -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양성평등 교육 개설 권장
 - 대학별로 양성평등 교육 시행 확대 유도

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교육부)
 -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제4조) 및 책무(제5조) 부분에 양성평등 가치 추가 개정 검토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교육부)
 - 진학지도 등에 성별 다양한 진로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 대학 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등) 실시 권고 및 지원
 - 교육대 및 사범대 교직과목에서 양성평등 관련 내용 편성 운영 등

예비교원 양성평등 교육 강화

- 학교 전문상담교사 2급 취득 과목 내 양성평등 의식 및 관련 교육 강화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
 -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등 학내 비교원 상담사에 대한 양성평등 연수 강화
-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령별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여학생의 생리공결제 지속 운영 및 안내 (교육부)
 - 생리공결제 사용 시 출석인정 가능 안내 실시
-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체계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여성가족부 전담부서 설치
- 양성평등 초·중등 학교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자체평가 우수 학교 선정 및 표창 실시
 - 양성평등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 양성평등 시범학교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국공립대 여성교원 확대 지원
 -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양성평등 우수사례 확산 심포지엄 개최 및 미흡대학에 대한 컨설팅 추진

- 그 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계기로 각 대학의 여교수 채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4년부터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4~2008)』을 수립,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센터(WISET;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를 설립,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비롯하여 이공계 전공 여대생 연구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이공계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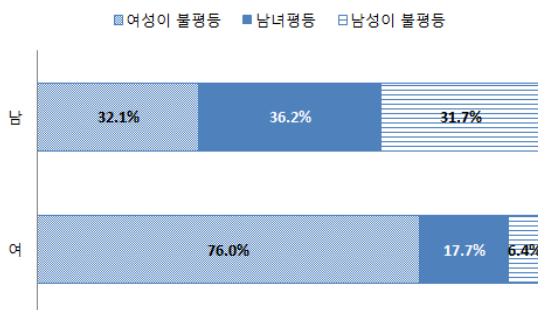
□ 제도적 평등, 양적 평등에 비해 요원한 질적 평등

- 한국은 특유의 교육열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유례없는 교육성장을 하였고, 취학률과 고등교육 진학에서도 눈에 띄는 성평등을 이루었음. 그러나 이와 같

은 양적 평등에 비해 질적 평등, 즉 의식과 가치에서의 평등은 여전히 요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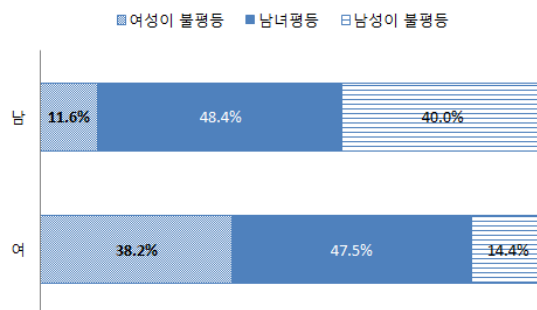
- 지난 봄 초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은 학교 영역에서도 예외가 없었음.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증언하는 학내 성폭력 문제는 교육에서의 양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차별적인 교육적 환경과 관행,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제도의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내었음.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공공연한 여성혐오와 여학생들이 제기하는 학내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학생 간 성평등의식의 격차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첨예한 성별갈등의 문제를 노정함.
- 실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6.0%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이 현사회를 여성에게 불평등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동일한 생각을 가진 남성 청소년은 32.1%에 불과하여 성별 성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10). 오히려 비슷한 비율인 31.7%의 남성 청소년들은 현사회를 우리사회를 남성이 불평등한 사회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여성 청소년(6.4%)의 다섯 배 수준임.
- 주목할 부분은 남성 청소년이 남성 불평등 사회를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임. 남성 청소년의 40.0%는 향후 5년 내 우리사회가 남성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그림11). 이는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달성되었거나, 여성 불평등사회라고 해도 향후 우리사회에서 남성의 지위와 권력이 점차 감소하여 머지않아 남성이 불리한 사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엿보게 함.

〈그림 11〉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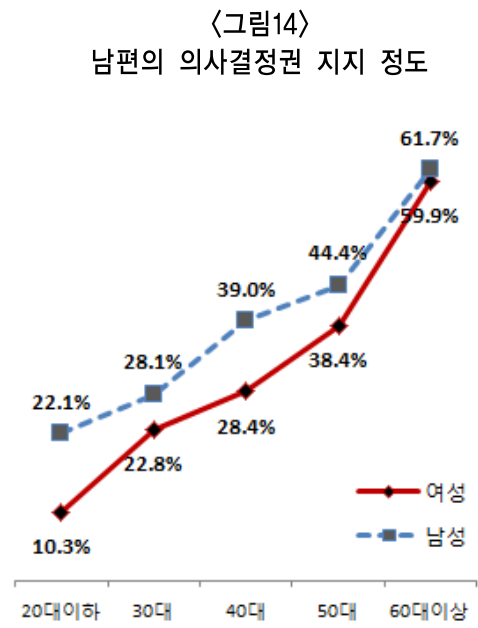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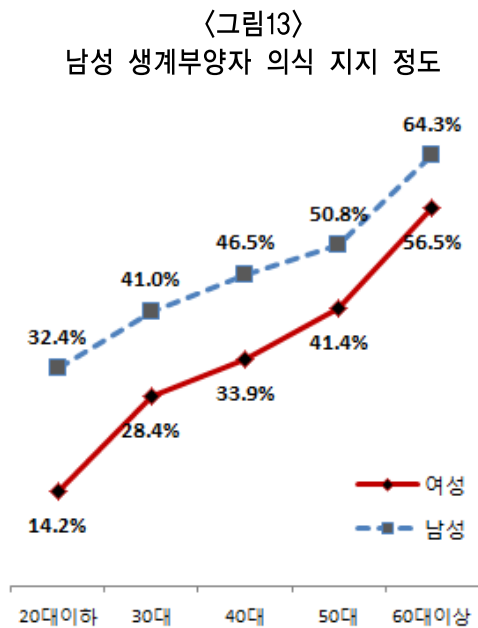
자료: 최유진 외(2016), p.355 <표 IV-26> 재구성

〈그림 12〉 5년 후 성평등 수준 전망



자료: 최유진 외(2016), p.355 재구성. <표 IV-27> 재구성.

- 청소년들의 성별 의식 격차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것이 비단, 일시적이거나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세대별 남녀의 성평등의식을 측정 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같은 세대 내에서의 성별 의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중고령층에서는 성평등의식 자체는 낮았으나, 세대 내 성별 격차는 작는데 비해, 젊은층에서는 성평등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세대 내에서 성평등 의식 격차는 점점 커짐.



자료: 마경희 외(2017). p.74

자료: 마경희 외(2017). p.75

- 이러한 분석결과는 작금에 우리사회의 성별 갈등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 줌. 여성 청소년들의 민감도는 날로 높아가는 반면, 남성 청소년들은 성평등을 '위협'으로 바라보고, 이를 '피해'와 '손해'로 인식하고 있음. 자라나는 세대의 성평등 의식이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으로 변질 수도 있음(최윤정, 2018).
- 그럼에도 우리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보이지 않고 있음. 여전히 학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시된 성평등교육 또한 매우 단편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최유진 외, 2016). 2015개정교육과정 이래 성평등교육은 범교과학습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교과교육 내에서도 매우 한정적 수준과 범위에서 성평등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최윤정, 2018). 한국교육이 양적측면에서의 성평등을 넘어 성평등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 한국은 초중등교육에의 접근성에서는 이미 양성평등을 달성하였고, 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도 꾸준히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 여전히 고등교육 진출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열세함. 남녀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여학생이 7%p 가량 높지만, 실제 재학에서의 비율은 전문대를 포함해도 41%에 불과함. 이는 재수생을 고려하지 않는 진학률 지표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남학생의 진학률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은 대학을 덜 가는 것이 아닌 많은 남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즉,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남학생 우선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함.
 - 이러한 의미에서 고등교육 진입 현황을 보기 위해 성별 대학 진학률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적용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도이탈에서의 남학생 가속화 문제도 고려할 만한 지점임. 남학생들의 이탈 사유가 여학생과 다른 지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실태를 보이는지 등 학교 밖청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이들 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 또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에서의 전공은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직종 간의 성별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학생의 전공 다양화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고등교육 영역에서 성별 분리현상은 계속되고 있음.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파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고등교육 여교원 및 중등교육에서의 여성관리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임.
 - 고등교육 여교원 문제는 2004년부터 정부가 ‘국공립대 여성임용 목표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임교원 비율이 14.9%에 불과함.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5 당시에도 이미 박사과정에서의 여성 비율은 32.3%였음. 따라서 충분한 풀(pool)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으로의 진출이 미진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조치와 지원을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임.
 - 초중등에서의 여성관리자 진출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임. 특히

교원의 과반이 여성임에도 교장 비율은 10.4%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에서의 여성관리자가 희소한 이유와 정책적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한국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측면은 성평등의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남녀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평등을 달성하였다고 하기에 한국교육의 발전수준이 너무 높음.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에 대한 편견 없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며, 성인지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진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향후 집중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3) K-SDG 4.5 지표(성별)

4.5.1 성별 총취학률

1) 정의

- 성별 학령기 연령 인구 대비 성별 재적 학생의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취학률 지표는 특정 연령 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에 충분히 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교육체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성별 취학률은 남녀학생의 취학 상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산식]

해당 학교급 등록 학생수/해당 학교급의 학령기 인구수 * 100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 : 학교급별 등록 학생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연령대별 인구수

4) 최근 5년간 추세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100% 가까이 달성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점차 향상되는 추세임. 초중고 모두 성별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임.

| 구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초 | 남 | 100 | 99.4 | 99.9 | 99.5 | 98.1 |
| | 여 | 99.8 | 99.0 | 99.7 | 99.4 | 98.1 |
| 중 | 남 | 99.4 | 100 | 100 | 100 | 100 |
| | 여 | 99.1 | 99.7 | 100 | 99.7 | 99.2 |
| 고 | 남 | 95.5 | 96.3 | 95.7 | 96.6 | 97.4 |
| | 여 | 95.3 | 96.1 | 95.8 | 96.4 | 97.2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재분석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DB, 재분석.

4.5.2 초중등 성별 학업중단율

1) 정의

- 성별 재적학생 중 성별 유예, 또는 학업이탈자의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교육은 진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해진 교육과정을 끝까지 완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중도탈락율이 높다는 것은 교육시스템의 학생들을 학업 중간에 누수시킴을 의미한 것으로 학생 관리 역량과 직결됨.
- 많은 개도국에서 여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동, 여성의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조혼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족 등이 초등학교 학업중단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기는 하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산식]

성별 유예 및 면제자/성별 재적 학생수 * 100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

4) 최근 5년간 추세

-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어 추세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구분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초 | 남 | 0.6 | 0.6 | 0.6 | 0.5 | 0.6 |
| | 여 | 0.6 | 0.6 | 0.5 | 0.5 | 0.5 |
| 중 | 남 | 0.9 | 0.8 | 0.7 | 0.6 | 0.6 |
| | 여 | 0.9 | 0.8 | 0.7 | 0.6 | 0.6 |
| 고 | 남 | 2.0 | 1.7 | 1.5 | 1.4 | 1.4 |
| | 여 | 1.6 | 1.4 | 1.3 | 1.2 | 1.3 |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p.54-55.

4.5.3. 고등교육 여성 교원 비율

1) 정의

- 고등교육 전체 교원수 대비 여성 교원수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교단의 여성화’를 우려할 만큼 여교사 비율은 높아졌음에도 고등교육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25.8%에 불과함. 전문대 및 각종대를 제외한 대학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이 보다 더 낮은 23.0%이며, 상대적으로 학교평판이 높은 편인 국립대에서의 여교원 비율은 15.0%로 여전히 매우 낮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교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여성 박사학위자 비율이 30%를 상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단의 성평등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지표로 고등교육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산식]
여성 전임교원수/전체 전임교원수 * 100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

4) 최근 5년간 추세

- 지속적으로 향상 추세에 있으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딤.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대학교 | 23.2 | 23.8 | 24.4 | 24.8 | 25.2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4.5.4.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이수율

1) 정의

- 지난 1년간 성평등교육 이수 비율
- 지난 1년간 성교육 이수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양적 측면에서의 성평등 뿐 아니라, 질적측면에서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에서의 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성교육의 경우 범교과로서 매해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달성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첫째,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교육정책 및 체계의 노력과 현황을 파악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성평등의식보다 교육의 이수율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산정방법 및 출처

- [산식]
성평등교육 이수 학생수/전체 학생수 * 100
성교육 이수 학생수/전체 학생수 * 100
- [출처]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제154021호)

4) 최근 5년간 추세

-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구분 | 2016 |
|-----------|------|
| 성평등교육 이수율 | 84.9 |
| 성교육 이수율 | 46.3 |

자료: 최유진 외(2016).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마경희·황정임·김은지·강민정·최윤정·문희영(2017).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유진 외(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윤정(2018).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의 추진 여건 정책 방향의 고찰. 2018년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18.6.16.).
- OECD(2018). The ABC of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ptitude, Behaviour, Confidence, PISA. OECD Publishing.
- UNESCO UIS(2018). One in Five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s is Out of School. Fact Sheet NO. 48, Feb. 2018, UIS/FS/2018/ED/48. UNESCO UIS.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현황과 과제

신호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부장)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현황과 과제

신효숙(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부장)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5) 탈북청소년에게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보장

1) 현안 진단

- 탈북청소년이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24세 이하인 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기간, 개인적 특성,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초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호 대상자’를 의미하며 북한 출생 청소년이 이에 해당함
 - 탈북청소년은 크게 북한 출생, 제3국 출생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일컫음
-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북한 출생 청소년은 관련 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통일부 지침),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거해 무상 초·중등교육에 대한 접근 및 이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도 보장되고 있음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 받음
- 만 34세 이하로 일반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대학특례 혜택과 함께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전액 면제, 사립대학의 경우 50%를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이 지원됨. 2017년에 232개의 대학, 1,844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41억 20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하였음

<표 1> 북한이탈주민 사립대학 교육지원 현황

(단위: 개/명/백만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대학수 | 156 | 157 | 183 | 200 | 253 | 218 | 239 | 232 |
| 지급 인원 | 952 | 1,334 | 1,570 | 1,704 | 1,894 | 2,006 | 1,934 | 1,844 |
| 지급액 | 2,352 | 3,157 | 3,294 | 3,747 | 4,212 | 4,555 | 4,216 | 4,120 |

출처 :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56쪽.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게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제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들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탈북학생은 남북한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이, 탈북 과정의 학습 공백, 심리정서적 문제, 또래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교육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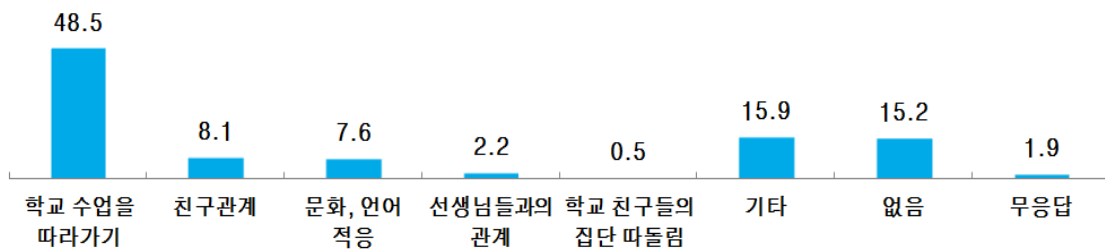
*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변화 추이 : '13년 3.5% → '14년 2.5% → '15년 2.2%
→ '16년 2.1% → '17년 2.0%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7년) : 초등학교 1.0%, 중학교 1.8%, 고등학교 4.3%

- 탈북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생활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는 학교 수업 따라가기로 응답하였으며,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학생 모두 정체성의 혼란, 친구관계, 가정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은 한국어 사용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과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북한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해 기초적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각종 용어나 교육문화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교과 수업 내용의 이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북한 출생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48.5%), ‘친구관계’ (8.1%), ‘문화·언어 적응’ (7.6%)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제3국 출생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47.2%), ‘문화·언어 적응’ (18.1%), ‘친구관계’ (8.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하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언어 적응,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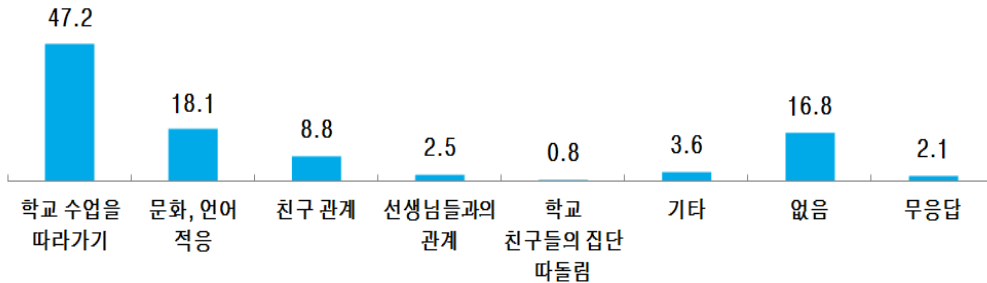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탈북 청소년)

(N=재학생 856명, 단위: %)



<그림 2>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제3국 청소년)

(N=재학생 1,088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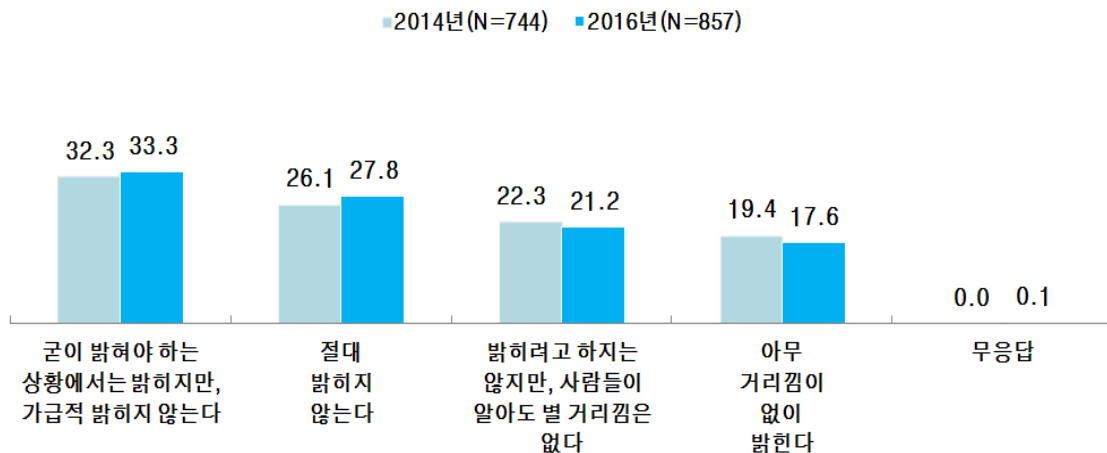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탈북청소년 중에는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이 누적되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일반학교에 편입한 탈북청소년의 다수는 자신이 북한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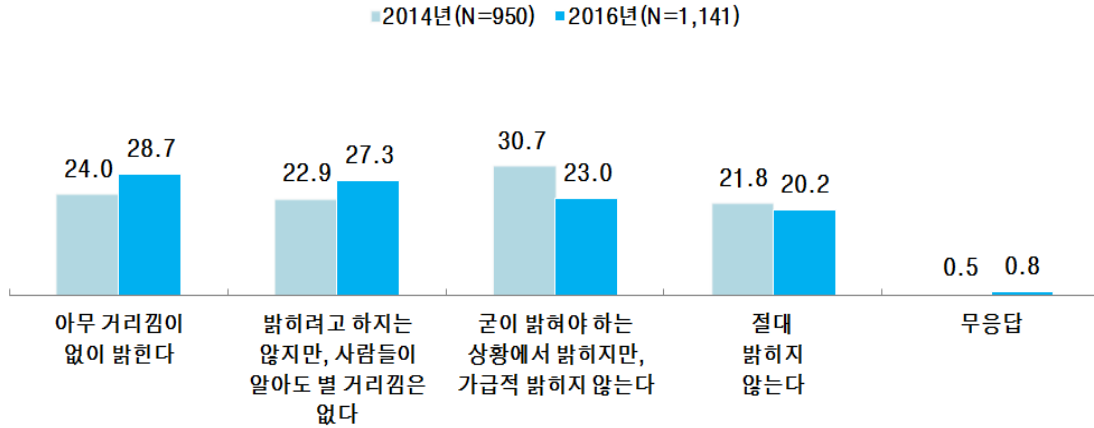
<그림 3> 출신 공개 여부 (탈북 청소년)

(N=탈북청소년 857명, 단위: %)



〈그림 4〉 출신 공개 여부 (제3국 청소년)

(단위: %)



* 출처: 남북하나재단(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들의 사망이나 이혼, 이별 등을 경험하게 되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음. 북한 출생의 가족구성 비율을 보면 부모-자녀 가정 44.4%에 비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하고만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49.4%로 높으며, 제3국 출생의 경우에 부모-자녀 가정 52.5%에 비해 한부모 가정 45.2%로 높은 비율임. 이는 탈북학생은 가족구성원 간의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 입국 후에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학업중도탈락을 낮춤과 동시에 학교 안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양질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대안적 학습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에 의하면 북한 출생 보다 제3국 출생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하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중국어만 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이별 경험 등으로 초기 학교 적응에 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2017년 4월 현재 정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538명이다. 초등학생이 1,02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726명, 고등학생은 785명이다.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는 226명이 재학하고 있음
- 전체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중 56.6%는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다. 제3국 출생 학생은 초등학생이 666명(64.9%), 중학생이 394명(54.3%), 고등학생이 377명(48%) 재학하고 있음
-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중국에서의 양육과 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 엄마의 한국 입국과 이별 경험, 중국어 사용과 한국어의 미숙 등으로 가정생활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심리적 위축과 어려움을 호소

<표 2> 출신지별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현황

| 구분 | 정규학교 | | | | | |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 계 |
|----------|-------|-----|-----|-----|------|-----|-----------------|-------|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 북한 | 제3국 | 북한 | 제3국 | 북한 | 제3국 | | |
| 재학 현황 | 361 | 666 | 332 | 394 | 408 | 377 | 226 | 2,764 |
| | 1,027 | | 726 | | 785 | | | |
| | 2,538 | | | | | | | |

출처: 교육부(2017)

- 관련 계획으로는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통일부) 이 있음

2)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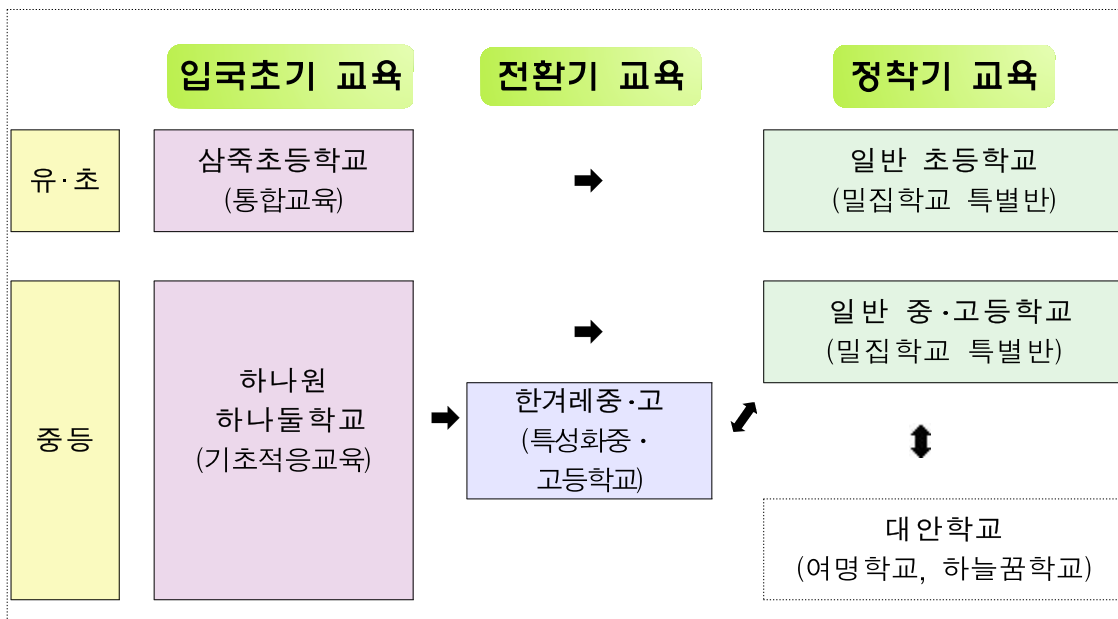
- 정착기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기본방향으로 다양한 수준의 대안적 학습방법과 교육지원체계 마련
 -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탈북청소년에게 무료 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의 특례입학과 학비 지원을 제도화하였으나 여전히 학교 진입과 적응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로의 통합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반학교와 기타 다양한 교육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위탁교육 형태의 학교를 확대해야 함. 탈북학생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전환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인가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하늘꿈학교, 드림학교는 학령 초과자,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특화 운영해야 할 것임

*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 특성화 중·고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

- 탈북학생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정착지 일반학교로 편·입학을 유도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탈북학생 정착 단계별 교육체계도



- 일반학교의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감소를 위해 학업 및 진로 지도 강화
 -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8년 10.8%에서 '17년 2.0%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업 보충, 교사 멘토링, 진로 상담 등의 정책적 기반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탈북학생 1인당 1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담임 교사 멘토링을 포함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
 - 탈북학생에 대한 올바른 진학·진로지도를 위해서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

회 등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등 맞춤형 진로·직업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탈북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해 탈북학생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진로·직업교육의 보다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및 지도교원의 양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신설('15.1.6)

-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확대 및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이 전체 탈북학생의 56.6%를 차지하는 등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제3국 출생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학교 적응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 하나원 내 탈북 중·고등학생의 학업보충과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둘학교* 및 유·초등학생의 위탁학교인 삼죽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배치하여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 외에도 정착지 학교 편입 초기에 일반학교와 대안교육시설에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대외명칭 하나원) 내에 설치된 교육시설
 - ** 경기도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
 - *** 대안교육시설에 중국어 이중언어강사 11곳 지원, 한국어 지원사업 15곳 지원(남북하나재단, 2018년 현재)
 -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적응 및 양질의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초기 편입학 지원, 학업 보충, 심리정서적 상담, 진로교육 지원 등 통합교육을 위해서 탈북학생 밀집 재학학교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통일전담교육사*를 추가 파견해야 함
 - * 남북하나재단은 재북교사경력자를 대상으로 탈북청소년의 학업과 적응을 지원해주기 위해 통일전담교육사를 선발하여 일반학교에 배치 운영('18. 7월 현재 탈북학생 밀집학교 22개교에 22명의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3) K-SDG 4.5 지표작성(탈북민)

4.5.1.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보장

1) 정의

- 법정 무상 및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2) 목적 또는 의의

- 고교 의무·무상교육을 통한 OECD 수준의 12년 의무·무상교육 달성
-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무상 초·중등 교육기회의 보장

3) 산정방법 및 출처

- 법정 무상 및 의무교육 연 수

4) 최근 5년간 추세

-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무상임

5) 비교지표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4개 회원국의 학제와 고교 의무·무상교육 현황과 국제 비교

6) 시사점

-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등학교 학력을 마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한국의 일반 국민에게도 고교의 의무교육 여부에 대한 제도들을 법제화 하는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4.5.1.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

1) 정의

- 학업 중단자의 수

2) 목적 또는 의의

-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통해 모든 학습자가 적합한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

3) 산정방법 및 출처

-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전년도 재학생 총수) × 100
일반학생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를 의미함
일반학생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및 퇴학, 제적, 유예, 면제를 의미함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자퇴, 면제 등을 의미함
- 출처 : 교육부 통계

4) 최근 5년간 추세

- 탈북청소년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표 3> 탈북청소년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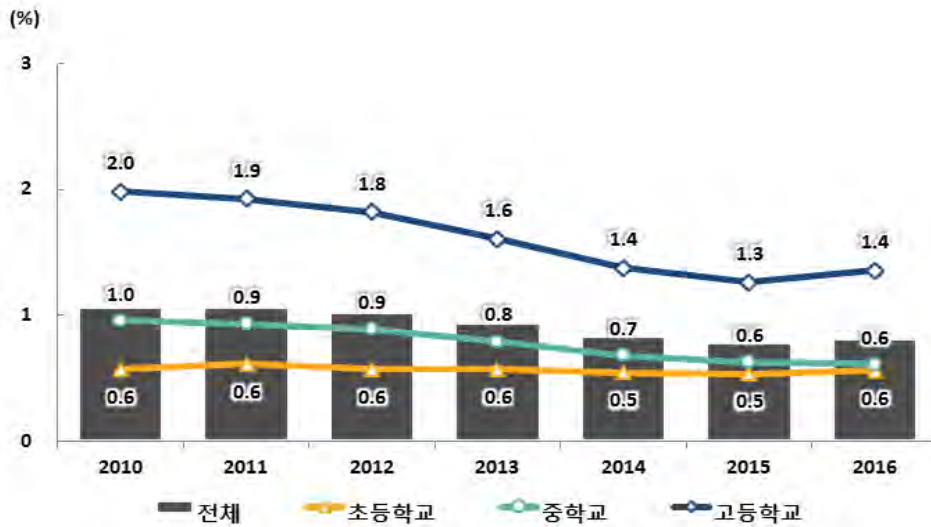
| 구 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10 | '09. 4. 재학생 수 | 562 | 305 | 276 | 1,143 |
| | 학업중단자 수 | 5 | 26 | 25 | 56 |
| | 학업중단율(%) | 0.9 | 8.5 | 9.1 | 4.9 |
| '11 | '10. 4. 재학생 수 | 773 | 297 | 347 | 1,417 |
| | 학업중단자 수 | 19 | 13 | 35 | 67 |
| | 학업중단율(%) | 2.5 | 4.4 | 10.1 | 4.7 |
| '12 | '11. 4. 재학생 수 | 1,020 | 288 | 373 | 1,681 |
| | 학업중단자 수 | 27 | 11 | 18 | 56 |
| | 학업중단율(%) | 2.6 | 3.8 | 4.8 | 3.3 |
| '13 | '12. 4. 재학생 수 | 1,204 | 351 | 437 | 1,992 |
| | 학업중단자 수 | 37 | 26 | 7 | 70 |
| | 학업중단율(%) | 3.1 | 7.4 | 1.6 | 3.5 |
| '14 | '13. 4. 재학생 수 | 1,159 | 478 | 385 | 2,022 |
| | 학업중단자 수 | 7 | 15 | 29 | 51 |
| | 학업중단율(%) | 0.6 | 3.1 | 7.5 | 2.5 |
| '15 | '14. 4. 재학생 수 | 1,128 | 684 | 371 | 2,183 |
| | 학업중단자 수 | 2 | 20 | 27 | 49 |
| | 학업중단율(%) | 0.2 | 2.9 | 7.3 | 2.2 |
| '16 | '15. 4. 재학생수 | 1,224 | 824 | 427 | 2,475 |
| | 학업중단자 수 | 7 | 19 | 26 | 52 |
| | 학업중단율(%) | 0.6 | 2.3 | 6.1 | 2.1 |
| '17 | '16. 4. 재학생수 | 1,143 | 773 | 601 | 2,517 |
| | 학업중단자 수 | 11 | 14 | 26 | 51 |
| | 학업중단율(%) | 1.0 | 1.8 | 4.3 | 2.0 |

※ 1.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변화 추이 : '13년 3.5% → '14년 2.5% → '15년 2.2% → '16년 2.1% → '17년 2.0%

• 한국 학생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 2016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4,998명(0.6%), 중학교 8,924명(0.6%), 고등학교 23,741명(1.4%)으로 중학교는 전년 수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각각 0.1%p 상승



<표 4> 학업중단율

(단위: 명, %)

| 구분 (학년도) | 계 | |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
| | 학생 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학생 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학생 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학생 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 2016 | 5,882,790 | 47,663 | 0.8 | 2,672,843 | 14,998 | 0.6 | 1,457,490 | 8,924 | 0.6 | 1,752,457 | 23,741 | 1.4 |
| 2015 | 6,088,827 | 47,070 | 0.8 | 2,714,610 | 14,555 | 0.5 | 1,585,951 | 9,961 | 0.6 | 1,788,266 | 22,554 | 1.3 |
| 2014 | 6,285,792 | 51,906 | 0.8 | 2,728,509 | 14,886 | 0.5 | 1,717,911 | 11,702 | 0.7 | 1,839,372 | 25,318 | 1.4 |
| 2013 | 6,481,492 | 60,568 | 0.9 | 2,784,000 | 15,908 | 0.6 | 1,804,189 | 14,278 | 0.8 | 1,893,303 | 30,382 | 1.6 |
| 2012 | 6,721,176 | 68,188 | 1.0 | 2,951,995 | 16,828 | 0.6 | 1,849,094 | 16,426 | 0.9 | 1,920,087 | 34,934 | 1.8 |
| 2011 | 6,986,847 | 74,365 | 1.1 | 3,132,477 | 19,163 | 0.6 | 1,910,572 | 17,811 | 0.9 | 1,943,798 | 37,391 | 1.9 |
| 2010 | 7,236,248 | 76,589 | 1.1 | 3,299,094 | 18,836 | 0.6 | 1,974,798 | 18,866 | 1.0 | 1,962,356 | 38,887 | 2.0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학생 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년도 3월 ~ 차년도 2월 기준)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5) 비교지표

- 한국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교육부 통계)

6) 시사점

- 일반국민 대비 낮은 탈북청소년의 초·중·고 학업중단율 개선을 통해 탈북청

소년의 학업 이수율 개선 및 정착기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강화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대안적 학습형태와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4.5.3.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1) 정의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육적 지원

2) 목적 또는 의의

-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적 지원(affirmative action)으로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 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인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 멘토링, 심리상담,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공평한 교육 기회의 보장

3) 산정방법 및 출처

-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맞춤형 멘토링, 심리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의 실시 여부

4) 최근 5년간 추세

- 최근 5년간 정착지 일반학교에서는 탈북학생과 교사 간에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6년부터 맞춤형 교육으로 삼죽초,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심리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는 외부자원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2016년부터 맞춤형 교육으로 삼죽초, 한겨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학교에는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또는 통일전담교육사)를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5) 비교지표

- 없음

6) 시사점

- 탈북학생들은 재북 및 탈북과정, 그리고 남한사회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 등 교육의 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세종:교육부.
- 교육부 (2018). 2018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세종:교육부
- 남북하나재단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남북하나재단.
- 신효숙 (2018.7.20). 탈북청소년 진로 현황과 정책 제언.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통일부 (2018).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18).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통일부.
- 통일부 (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서울:통일부.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현황과 과제

신재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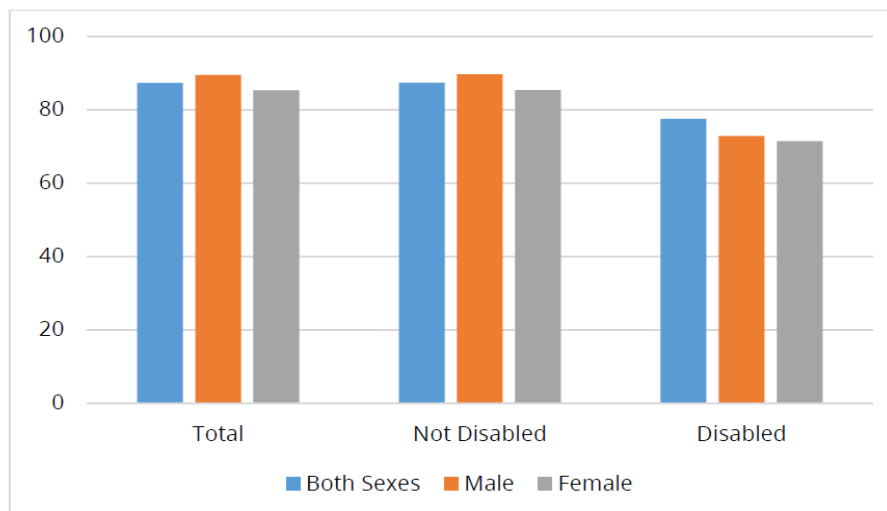
신재현(경인교육대학교 교수)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현안 진단

-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과 적절한 교육에의 접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양질의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사회적, 교육적 기회 및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다양한 취약계층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기회의 박탈을 경험하는 그룹이 장애인이며, UN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에서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음
- **국제적 현황:** UNESCO에서 발표한 주요 지표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15~29세 장애 및 비장애인(%)



Source: IPUMS and SWTS, 2006-2015.

조사대상국 대부분에서 15-29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학경험(학교를 한번이라도 다녀본 경험)이 낮았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는 미국에 비해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비율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총 6개 국가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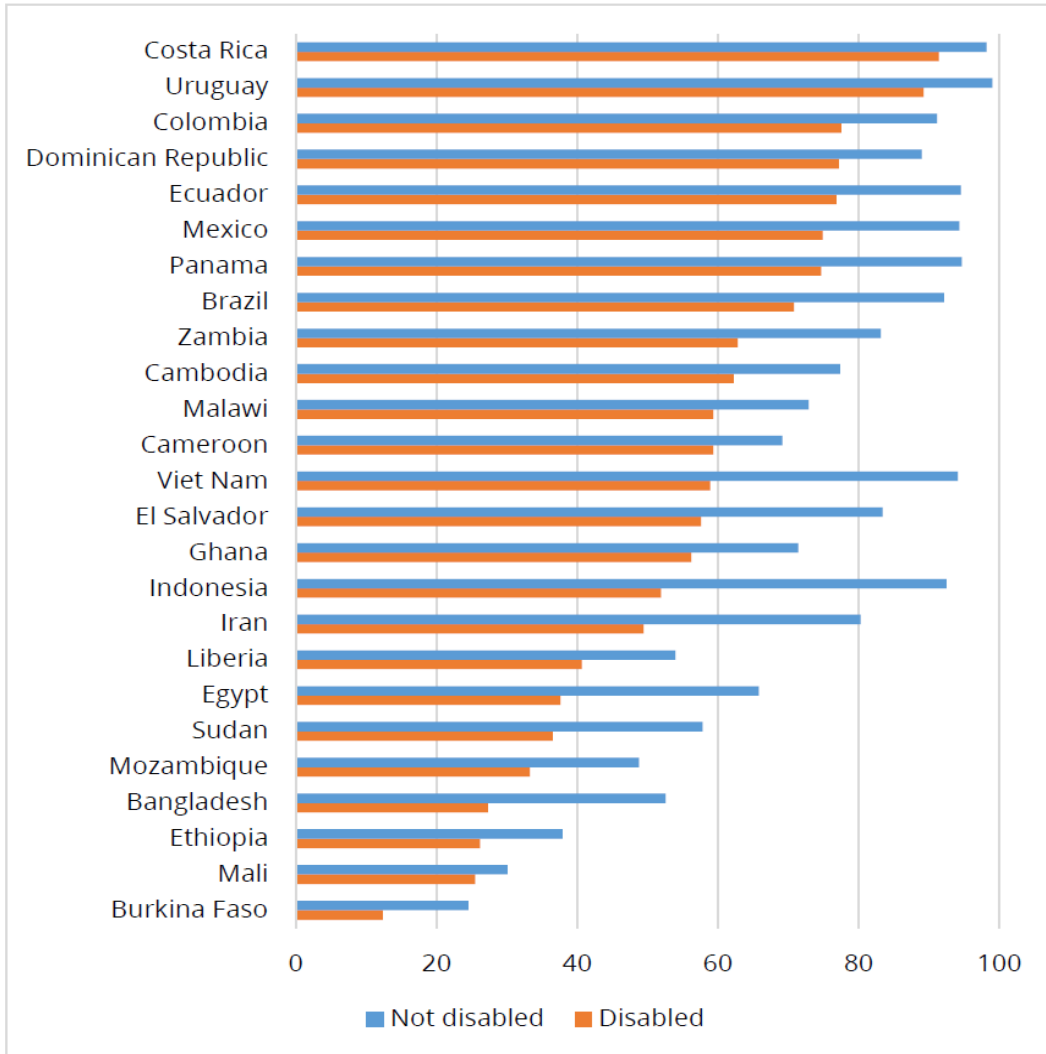
<표 1> 초등학교 교육 이수율

| Country | Year | Proportion of cohort with a disability (%) | | | Completion rate, all children (%) | | | Completion rate, children without a disability (%) | | | Completion rate, children with a disability (%) | | | Adjusted disability parity index | | |
|-----------|---------|--|-----|-----|-----------------------------------|------|------|--|------|------|---|--------|--------|----------------------------------|--------|--------|
| | | MF | M | F | MF | M | F | MF | M | F | MF | M | F | MF | M | F |
| Cambodia | 2014 | 0.8 | 0.9 | 0.6 | 72.3 | 67.7 | 77.2 | 72.5 | 67.8 | 77.6 | (44.3) | . | . | (0.61) | . | . |
| Colombia* | 2009-10 | 2.0 | 1.8 | 2.2 | 90.6 | 88.0 | 93.3 | 91.1 | 88.6 | 93.9 | 63.3 | 58.8 | 67.1 | 0.69 | 0.66 | 0.71 |
| Gambia* | 2013 | 1.3 | 1.0 | 1.6 | 62.0 | 64.0 | 60.2 | 62.1 | 64.6 | 59.9 | (56.6) | . | . | (0.91) | . | . |
| Maldives | 2009 | 5.4 | 5.4 | 5.3 | 96.8 | 95.3 | 98.3 | 97.7 | 96.6 | 98.8 | 78.8 | 69.1 | 87.9 | 0.81 | 0.72 | 0.89 |
| Uganda | 2011 | 2.5 | 2.7 | 2.2 | 39.4 | 35.7 | 43.2 | 39.5 | 36.0 | 43.1 | 34.2 | (23.2) | (47.7) | 0.87 | (0.64) | (1.10) |
| Average | | 2.4 | 2.4 | 2.4 | 72.2 | 70.1 | 74.4 | 72.6 | 70.7 | 74.7 | 55.5 | 50.4 | 67.6 | 0.76 | 0.71 | 0.90 |

Source: DHS, 2009-2014.

- 15세 이상 및 성인의 문해율도 조사대상 25개국 전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비장애인 간 문해율 차이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1%포인트였음. 또한, 여성 장애인의 문해율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 장애뿐 아니라 성차에 의한 문해율 차이도 발견됨

<그림 2> 15세 이상 성인의 문해율



Source: IPUMS-International, 2005-2011.

-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성 및 고용기회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 및 취업률(2017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 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전문대,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40~53% 수준인 반면, 전공과 학생의 전문대/대학으로의 진학률은 0.6~0.9%에 그치고 있음. 즉, 사회적응과 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손지영, 정소라, 김동일, 2011; 정정진, 2007)
 - 장애인의 취업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12~32% 수준이었고, 전공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인 40~66%로 나타남

<표 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들의 진학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졸업자 수 | 진학 | | 취업 | | 비진학 미취업자 수 | |
|-------------|-------|------------------------|------------|-------|------------|---------------|-------|
| | | 진학자 수 (대학 / 전공과) | 진학률 (%) | 취업자 수 | 취업률 (%) | | |
| 고등 학교 | 특수학교 | 2,546 | 1,353 | 53.1 | 145 | 12.2 | 1,048 |
| | 특수학급 | 3,989 | 1,591 | 39.9 | 790 | 32.9 | 1,608 |
| | 일반학급 | 1,199 | 638 | 53.2 | 92 | 16.4 | 469 |
| | 계 | 7,734 | 3,595 | 36.8 | 1,847 | 29.8 | 3,125 |
| 전 공 과 | 특수학교 | 1,942 | 12 | 0.6 | 748 | 38.8 | 1,182 |
| | 특수학급 | 110 | 1 | 0.9 | 72 | 66.1 | 37 |
| | 계 | 2,052 | 13 | 1.5 | 820 | 40.2 | 1,219 |
| 전체 | 9,786 | 3,595 | 36.8 | 1,847 | 29.8 | 4,344 | |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출처: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7)

- 고등교육 이전 기본적인 교육기회 정도를 나타내는 학업중단을 지표에 있어서도 정서 및 신체장애, 학습장애 등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장애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추진 방향

-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직업기회 향상을 위해서는 각 교육단계별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부에서는 2018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주요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자이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지원 대상인 학령기 학생들로 각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유형이 다소 상이하나, 이 글의 초점이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논의에 있는 바, 동질 집단으로 고려하기로 함.

<그림 3> 2018 특수교육 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출처: 교육부

① 고등학교과정 졸업 장애인들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제고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내실화

- 2017년 2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7,700여명의 전체 대학 진학률은 약 46%(특수학교 53%, 특수학급 40%, 일반학급 53%)로 비장애 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전공과 진학을 제외하면 훨씬 더 감소
-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 확대

-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 내실화(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 도모)
-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확대(신설 또는 통합형 거점학교 운영 등)

<표 3>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구분 | 학교 수 | 학급 수 | 학생 수 |
|------|------|------|-------|
| 특수학교 | 137 | 575 | 4,772 |
| 일반학교 | 18 | 34 | 217 |
| 계 | 155 | 609 | 4,989 |

② 지자체에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설(지역별 균형과 수요 반영)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관련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1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55, 56조)

<표 4> 연도별 특수학교 수 추이

| 연도 | '62 | '67 | '72 | '77 | '82 | '87 | '92 | '97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학교 수 | 10 | 22 | 38 | 51 | 65 | 95 | 103 | 114 | 143 | 144 | 149 | 150 | 150 | 155 | 156 | 162 | 166 | 167 | 170 | 173 |

③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담당 교원 및 인력 충원

<표 5> 설립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구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소계 |
|----|------|------|------|------|------|-----|
| 국립 | 1 | 1 | 1 | 1 | 1 | 5 |
| 공립 | 2 | 3 | 65 | 5 | 1 | 76 |
| 사립 | 9 | 10 | 55 | 13 | 5 | 92 |
| 계 | 12 | 14 | 121 | 19 | 7 | 173 |

④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실화를 통한 조기중재 및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지원·관리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의무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증설 및 교육 내실화
-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328명으로 장애 호전 후 입학을 원하거나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한 유예가 많았는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 필요

<표 6> 2017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구분 | 특수학교 유치원 | | 유치원 특수학급 | 계 |
|------|-------------------|------------------------------|-------------|-------|
| |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A) |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 | |
| 학교 수 | 122 | 9 | 714 | 836 |
| 학급 수 | 273 | 66 | 731 | 1,004 |

⑤ 장애학생 고등교육(대학교육) 지원 내실화 및 학습권 보장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기능 내실화 및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 지원, 보조인력(학내 이동 및 강의 대필지원 등의 일반도우미, 수화통역 및 속기사 등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전문도우미, 원격교육전문도우미 등)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 내실화
-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한 학습지원 확충

<표 7>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 구분 | 학교 수 | 도우미 수 | | | | |
|-------------------|-----------|-----------------|------------------|----------|-------|-------|
| | | 1~3급 장애학생 지원 | 4급 이하 장애학생 지원 | 구분 없음 | 계 | |
| 일반 도우미 | 대학(원) | 136 | | | 2,629 | 2,629 |
| | 전문대학 | 66 | | | 472 | 472 |
| | 원격대학 | 2 | | | 80 | 80 |
| | 소계 | 204 | | | 3,181 | 3,181 |
|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32 | 91 | - | | 91 |
| | 전문대학 | 13 | 29 | 1 | | 30 |
| | 원격대학 | 5 | 32 | 2 | | 34 |
| | 소계 | 50 | 152 | 3 | | 155 |
|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24 | | | | |
| | 전문대학 | 4 | | | 25 | 25 |
| | 원격대학 | 4 | | | | |
| | 소계 | 32 | | | | |
| 계 | 222(중복제외) | 152 | 3 | 3,206 | 3,361 | |

⑥ 지속적인 특수교육 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도모

- 특수교육 예산은 2017년 기준 전체 교육예산의 4.7%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함

- 1인당 특수교육비도 꾸준히 증가추세로 2017년 기준 2천 9백 만원 선임

⑦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예비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확대
- 현직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등 관련 연수 강화
- 통합교육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일반-특수교사 협력 수업 연구회 지원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도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확대 및 지원 강화

<표 8>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 시·도 | 지정별 | | | 지원예산액 | |
|-----|------------|--------|-------|-------|---------|
| | 과정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
| 서울 | 유, 초, 중, 고 | 7 | - | 7 | 90,000 |
| 대구 | 유, 초, 중 | - | 9 | 9 | 14,000 |
| 인천 | 유 | - | 7 | 7 | 30,000 |
| 경기 | 유 | 6 | - | 6 | 31,500 |
| 충남 | 유 | 3 | - | 3 | 12,000 |
| 전북 | 유 | 1 | 1 | 2 | 10,000 |
| 전남 | 초, 중 | 2 | - | 2 | 14,000 |
| 제주 | 유, 초 | - | 4 | 4 | 7,000 |
| 계 | | 19 | 21 | 40 | 208,500 |

⑧ 학업중단 또는 취학유예 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 장애학생들의 배치환경(가정, 병원 및 시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 및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른 학업중단 및 취학유예 현황과 이유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학업중단 및 취학유예 장애학생들의 현재 상태(배치장소, 교육상태 등) 파악과 장기 유예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된 학습, 심리, 정서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예: 장기입원 또는 요양 중인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을 통한 학교적응 도모)

3) K-SDG 4.5 지표작성(장애인)³⁾

앞서 살펴본 현황 및 주요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장애학생의 교육 및 직업기회에의 접근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4.5.1. 학업중단율 (장애인)

1) 정의

- 총 재적학생 중,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업 중단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무교육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자 비율을 가리킨다(사회보장위원회, 2015).

2) 목적 또는 의의

- 학업중단율은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정책수립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표임(사회보장위원회, 2015)
- 비장애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비교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교교육 기회의 형평성 정도 파악

3) 산정방법 및 출처

-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전년도 재학생 총수) × 100

4) 최근 5년간 추세

- 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학업중단율 자료는 없는 실정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교육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건강악화로 인한 유예가 가장 많았고, 취학유예 학생들의 현재 상태로는 재택이 가장 높았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학교급 별로 취학유예 사유가 달랐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심화가 가장 큰 이유였고 중학교에서는 기타, 등교거부, 고등학교에서는 기

3)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2018)을 토대로 제시한 추진방향의 세부 사항을 모두 달성 지표로 잡는 대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하며 다른 취약계층(탈북민, 다문화 등)과 공통으로 사용할 지표로만 한정하였음.

타, 건강악화, 등교거부 순으로 나타남. 특수학급 취학유예 학생들의 현재 상태로는 초중고 모두 재택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정확한 학업중단을 데이터는 부재하나,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학업중단 인원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대략 3.9% 정도의 중단율을 보이고 있음

<표 9>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인원 및 사유 (2014년 기준)

| 구분 | 전체 | 이유 | | | | | 현재 상태 | | | |
|------|----|-----------------|---------------|--------------|---------------|-------------|---------------|---------------|--------------|---------------|
| | | 건강악화 | 등교거부 | 장애심화 | 가정형편 | 기타 | 재택 | 시설입소 | 모름 | |
| 특수학교 | 사각 | 119 (100.0) | 29 (24.4) | 6 (5.0) | 4 (3.4) | 0 (0.0) | 21 (17.6) | 39 (32.8) | 6 (5.0) | 14 (11.8) |
| | 청각 | 62 (100.0) | 16 (25.8) | 4 (6.5) | 6 (9.7) | 0 (0.0) | 6 (9.7) | 14 (22.6) | 2 (3.2) | 14 (22.6) |
| | 정신 | 475 (100.0) | 161 (33.9) | 8 (1.7) | 17 (3.6) | 28 (5.9) | 38 (8.0) | 113 (23.8) | 38 (8.0) | 72 (15.2) |
| | 자체 | 142 (100.0) | 54 (38.0) | 10 (7.0) | 4 (2.8) | 7 (4.9) | 14 (9.9) | 24 (16.9) | 12 (8.5) | 17 (12.0) |
| | 정서 | 66 (100.0) | 38 (57.6) | 0 (0.0) | 0 (0.0) | 5 (7.6) | 0 (0.0) | 14 (21.2) | 0 (0.0) | 9 (13.6) |
| 특수학급 | 유 | 92 (100.0) | 0 (0.0) | 0 (0.0) | 14 (15.2) | 0 (0.0) | 35 (38.0) | 5 (5.4) | 24 (26.1) | 14 (15.2) |
| | 초 | 1415 (100.0) | 49 (3.5) | 9 (0.6) | 354 (25.0) | 25 (1.8) | 270 (19.1) | 468 (33.1) | 32 (2.3) | 208 (14.7) |
| | 중 | 348 (100.0) | 18 (5.2) | 46 (13.2) | 27 (7.8) | 0 (0.0) | 83 (23.9) | 138 (39.7) | 15 (4.3) | 21 (6.0) |
| | 고 | 569 (100.0) | 62 (10.9) | 59 (10.4) | 27 (4.7) | 33 (5.8) | 99 (17.4) | 243 (42.7) | 31 (5.4) | 15 (2.6) |

5) 비교지표

-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 재학생의 학업중단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 재학생의 평균 학업중단율은 0.8%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0.6%, 고등학교가 1.4%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예: 자퇴, 퇴학, 유예 등)이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9>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재학생의 평균 학업중단율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초등학교 | 0.6% | 0.6% | 0.5% | 0.5% | 0.6% |
| 중학교 | 0.9% | 0.8% | 0.7% | 0.6% | 0.6% |
| 고등학교 | 1.8% | 1.6% | 1.4% | 1.3% | 1.4% |
| 전체 | 1.0% | 0.9% | 0.8% | 0.8% | 0.8% |

6) 시사점

- 장애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업중단을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배치유형(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및 학교급에 따라 취학유예의 이유가 상이한 점을 고려, 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

4.5.2. 취학률(장애인)

1) 정의

- 취학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취학률은 교육기회의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중의 하나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통해 해당 연령대별 교육 수혜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취학률 = (해당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 수/취학적령 인구) × 100
 - ※ 취학적령인구: 유치원(만3세~5세), 초등학교(만6~11세), 중학교(만12~14세), 고등학교(만15~17세), 고등교육기관(만18~21세)
 -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학생 수와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됨

4) 최근 5년간 추세

- 현재 장애영역별, 학교급별 취학인구에 대한 통계는 있으나,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연령 재적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취학률에 대한 통계치는 부재한 실정임⁴⁾

4) <표 10>의 통계치는 취학률이 아닌 학교급별 취학인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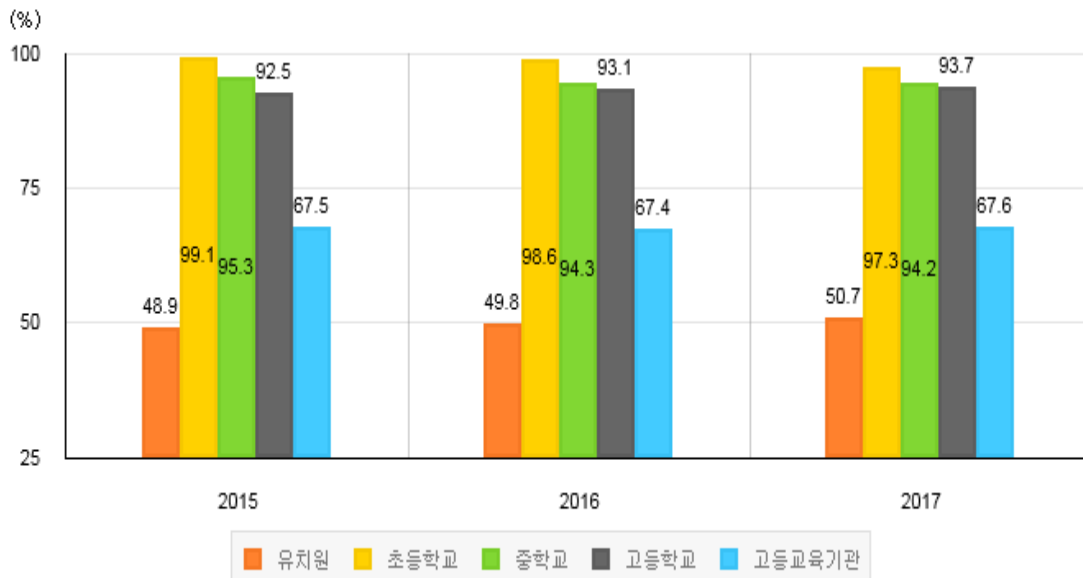
<표 10>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인구 현황 (교육부)

| | 2017 | | | | 2018 | | | |
|------|--------|--------|--------|--------|--------|--------|--------|--------|
|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계 | 특수 학교 | 특수 학급 | 일반 학급 | 계 |
| 유치원 | 948 | 2,763 | 1,726 | 5,437 | 944 | 3,058 | 1,628 | 5,630 |
| 초등학교 | 6,856 | 22,400 | 6,249 | 35,505 | 7,245 | 24,169 | 6,617 | 38,031 |
| 중학교 | 5,585 | 10,256 | 3,377 | 19,218 | 5,534 | 9,990 | 3,264 | 18,788 |
| 고등학교 | 7,489 | 11,928 | 4,238 | 23,655 | 7,076 | 11,422 | 4,086 | 22,584 |
| 전공과 | 4,772 | 217 | - | 4,989 | 4,956 | 209 | - | 5,165 |
| 계 | 25,798 | 47,564 | 15,590 | 88,952 | 25,919 | 48,848 | 15,595 | 90,362 |

5) 비교지표

- 우리나라 전체 학교급별 취학률
 - 초·중·고 모두 90% 이상으로 거의 완전 취학상태에 도달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도 70%에 육박하고 있음

<그림 4> 우리나라 전체 학교급별 취학률 현황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장래추계인구

6) 시사점

- 장애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교급별 취학률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취학률 추이 분석 필요

4.5.3. 진학률

1) 정의

- 진학률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과정 졸업자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비율

2) 목적 또는 의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을 파악하여 이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비롯하여 사회통합 및 독립적 생활 영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고등교육 기회는 소외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이 독립된 생활인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김동일 외, 2004)
-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경험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관심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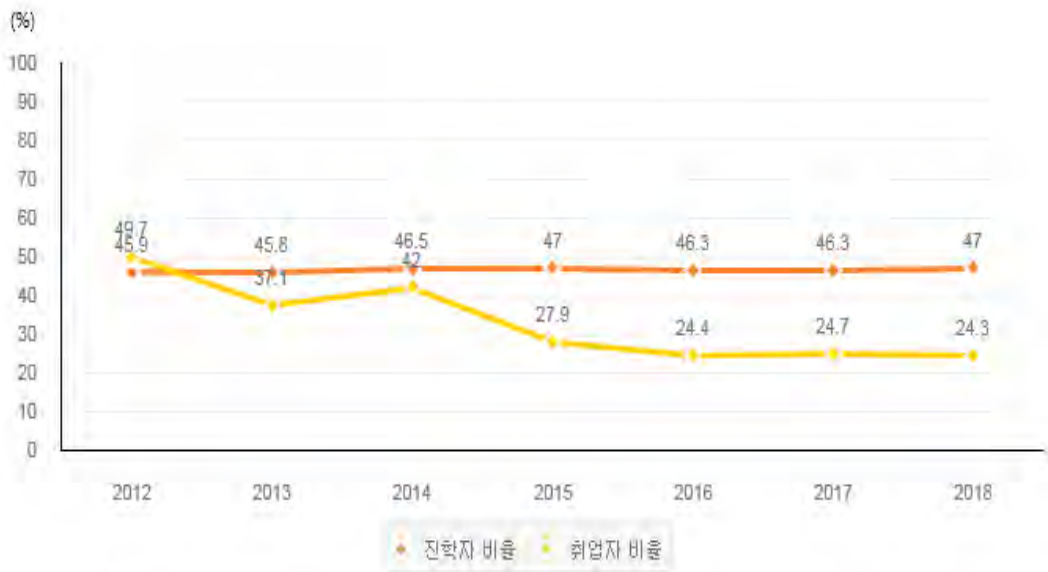
3) 산정방법 및 출처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 × 100

4) 최근 5년간 추세

- 2018년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학률은 평균 47%(특수학교 53.8%, 특수학급 40.6%, 일반학급 54.1%)로 전년 대비 근소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는 전공과(고등학교 과정 졸업자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진학을 포함하는 수치로, 순수하게 대학 및 전문대 진학만을 놓고 보면 2018년 현재 약 16.6%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 대학 및 전문대 진학률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학급 졸업자의 진학률은 52% 수준인데 반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13%, 특수학교는 4.5% 수준에 불과함

<그림 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진로 현황 (교육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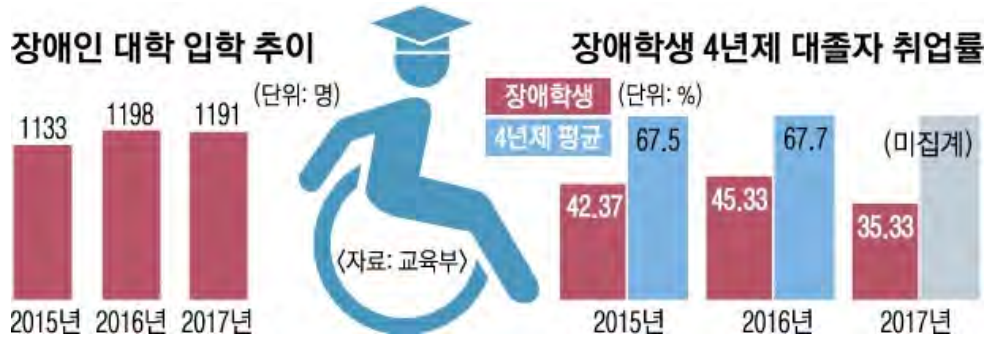


<표 11>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 | | 2018년도 | | | |
|----------|-------|---------|---------|---------|-------|
| | | 계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 졸업자 | 인원수 | 7,811 | 2,454 | 4,101 | 1,256 |
| 진학자 | 인원수 | 3,668 | 1,321 | 1,667 | 680 |
| | 비중(%) | 47.0 | 53.8 | 40.6 | 54.1 |
| 전공과 | 인원수 | 2,367 | 1,209 | 1,131 | 27 |
| 전문대 | 인원수 | 565.0 | 21.0 | 318.0 | 226.0 |
| 대학 | 인원수 | 736 | 91 | 218 | 427 |
| 취업자 | 인원수 | 1,006.0 | 97.0 | 824.0 | 85.0 |
| | 비중(%) | 24 | 9 | 34 | 15 |
| 미진학·미취업자 | 인원수 | 3,137.0 | 1,036.0 | 1,610.0 | 491.0 |

- 장애인 대학입학 추이는 2017년 기준 1191명으로 전년도 비교 유사한 수준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016년 현재 45.33%로 4년제 졸업생 전체 평균인 67.7%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임

<그림 6> 장애인 대학입학 추이 및 장애 대학생 4년제 대졸자 취업률



출처: 서울신문 2018년 2월 13일자 기사

5) 비교지표

-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의 대학 진학률
 - 2017년 기준 68.9%(대학등록자 기준)로 예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내 69~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12>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현황 (교육부 통계)5)

| 구분 | 고등학교→고등교육 | | | | |
|------|-----------|---------|------|---------|------|
| | 졸업자 | 합격자 기준 | | 등록자 기준 | |
| | | 학생수 | 진학률 | 학생수 | 진학률 |
| 2017 | 583,608 | - | - | 401,923 | 68.9 |
| 2016 | 607,598 | - | - | 423,997 | 69.8 |
| 2015 | 615,462 | - | - | 435,650 | 70.8 |
| 2014 | 632,983 | - | - | 448,817 | 70.9 |
| 2013 | 631,197 | - | - | 446,474 | 70.7 |
| 2012 | 636,724 | - | - | 453,899 | 71.3 |
| 2010 | 633,539 | 500,282 | 79.0 | 477,384 | 75.4 |
| 2005 | 569,272 | 467,508 | 82.1 | 417,835 | 73.4 |
| 2000 | 764,712 | 519,811 | 68.0 | 473,803 | 62.0 |
| 1990 | 761,922 | 252,831 | 33.2 | 206,790 | 27.1 |

6) 시사점

-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의 대학 진학률(약 69% 내외)에 비해 특수 교육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은 전공과 진학을 제외했을 때 평균 16.6%로 매우 낮은 실정임

5) 진학률(%)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 100, 2011년부터는 대학진학자 기준이 대학등록자로 변경됨(중전: 당해연도 2월 대학등록자)

- 특히, 특수학급 졸업자에 비해 일반학급과 특수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바, 이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모니터링 및 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책(장애학생 특별전형 확대 등) 마련 필요

참고문헌

- 김동일, 이태수, 김익수, 김혜영, 박유정(2004).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 52, 5-24.
- 교육부(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 **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18). **2018 특수교육통계**. 아산: 교육부.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아산: 교육부.
- 서울신문 2018년 2월 13일자 기사.
- 손지영, 정소라, 김동일(2011). 국내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5(4), 157-178.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3.
- 정정진(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1), 109-132.

토론 1.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다문화교육분야 제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성별 교육분야 제언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토론 3.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탈북민 교육분야 제언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토론 4.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육분야 제언

김원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연구위원)

토론 5.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제언

김영은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교육연구원)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